

2023. 08.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컨퍼런스

사교육 출발지 영유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주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23. 08. 21 (월) 13:00~17:30

■ 머리말

8/21(월), 사교육출발지가 된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심층분석하고,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사교육 출발지 영유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3년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발족하고 지난 10년 동안 영유아 사교육의 실상을 파악해왔습니다. 그간의 연구결과들은 각종 언론에 소개되며 영유아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여했고, 사회적으로 영유아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2천393명 중 21.9%가 최근 3달 이내 학원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원 이용률은 조사 첫해인 2018년 15.5%보다 6%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학원 외에도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문화센터, 교육형 온라인 콘텐츠, 개인 및 그룹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부모에게 사교육 이용의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넘어 영유아 발달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상위 학년 입시 경쟁의 부담으로 인해 선행학습으로 나타나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 문제는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올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이 저연령화,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에 발목 잡힌 영유아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국가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정책적으로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두 개 주제를 중심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유아의 사교육과 조기교육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만 0-2세 영아의 발달과 삶 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이나 문화센터, 학원 등 기관 프로그램, 가정방문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다양한 미디어, 책, 전자 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이들이행복한세상과 함께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아 부모와 영아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하여 방법과 시작 연령, 진행 시간 및 횟수, 비용, 부모와 보육교사의 인식, 쟁점,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만5세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0명 중 6~7명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한글과 수는 기본이고, 영어와 예체능까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교육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최근 5년 사이 그 수가 폭증하여 전국적으로 800곳이 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2022년1월 기준)의 경우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17곳 늘어난 311개였고, 학원비는 월평균 112만 6천원, 연간 약 1,351만원이었습니다.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초등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했습니다. 이 조사를 2023년 1월 기준으로 새롭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학원법에 따른 규제 부족으로 인해 유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사 자격, 교습비용 등 관리감독의 부재 문제와 더불어 유아 발달상황에 맞지 않는 학습식 교육과정의 폐해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허술한 상황입니다. 유아 사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광범위하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이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초청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 8.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측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애쓰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인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인 영유아시기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저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도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영유아 시기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경험했고, 5명은 3개 이상 사교육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 시기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영아 세션, 유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은 영아시기와 유아시기 각각에 맞는 실태 파악과 그에 맞는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충분한 숙의과정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 출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 정지현 대표님을 비롯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실무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좌장·발제자·토론자를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영어유치원으로, 초등학교 때부터는 의대 진학반을 준비하고, 중학교 때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으로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도에 발표한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2,393명 중 21.9%가 최근 3달 이내 학원을 이용했다고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진행했던 1차 조사에는 15.5%가 나왔으며, 4년 만에 6%p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심각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지만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위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하는 조기학습 관행

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마치 사교육 문제의 원인을 대입 수능의 ‘킬러문항’ 이라고 단순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단순히 킬러문항만 배제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만연한 사교육 벨트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해결을 시작으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컨퍼런스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영어유치원 등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컨퍼런스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에 알맞은 합리적인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유아사교육포럼 출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최근 사교육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우려와 염려가 큼니다. 학부모들의 부담뿐 아니라, 사교육이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교육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아 사교육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비전 삼아 “더 질 높은 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 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 교육, 더 건강한 안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서울교육은 모든 학생이 각자의 잠재력과 개성을 키워나가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 유아 사교육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미래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당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러분과 함께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유아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다음 세대를 위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출산 상황과 유보통합 등 급변하는 교육의 대전환기에서도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비하고, 영유아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교육 출발지 영유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컨퍼런스는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권익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내실화,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체험 중심 인성교육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및 맞춤형 방과후 운영, 유아 돌봄 확대 등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과 함께, 환경·생태, 문화 예술, 독서, 신체활동 등 다양한 영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영유아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축하드리며,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영유아사교육포럼 출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을 위해 애써 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지현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5세고시, 킬러문항, 카르텔 등 비교육의 단어가 교육현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쟁적 입시구조와 더불어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 영유아 시기는 아동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으로 아동에게는 잘못된 배움의 인식을 심어주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영유아 사교육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탐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장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6월 30일 난정평화교육원 개원식에서 어린이들이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평화인권 선언’의 일부입니다. 이 선언문은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성세대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동행하며,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어린이들이 주장하는 ‘배움의 자유’와 ‘창의성과 상상력을 위한 교육지원’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영유아 사교육 포럼 출범 10주년 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측사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별활동이나 유아 영어학원 등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영어를 접하고 배우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유아기의 주입식 영어 교육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아 사교육과 조기교육의 실태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번 콘퍼런스가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나아가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재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유아 발달 과정에 맞춰 누리과정을 더 내실화하고, 놀이 중심으로 유아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공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며, 콘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시민과 함께 더 많은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축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 출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중고등학생이나 학력증진과 다양한 취미 그리고 특기를 개발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영유아의 사교육 규모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크게 확장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유아의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넘어 영유아 발달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뤄지는 걸로 압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은 물론, 영유아 사교육 현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계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왜곡된 사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포럼 출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를 충남의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유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자리가, 사교육 부담으로 자녀와 가족이 누려야 할 다른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은 “어린이들을 숫자와 글자가 아닌 자연에서 뛰놀게 하라.” 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숲과 들에서 자연과 함께했던 경험은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관찰력, 창의력, 협력하는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적 감수성 등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을 키우기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문제는 영유아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정책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역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서열 체제를 완화하고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엮어진 실타래 같은 교육의 여러 문제를 풀어 사교육과 입시 고통에서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자는 희망”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사 회: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1세션

■ 좌 장: 임미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 제1 발제: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1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

■ 제1 토론: 김유미(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45
“영아 사교육, 영아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 제2 토론: 김오경(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 51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현장, 영아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은?”

■ 제3 토론: 홍기묵(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 59
“토끼는 빠르게 잘 뛰어야 하나?”

■ 제4 토론: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65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 부추기는 환경,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 제5 토론: 박지혜(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기관) 73
“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 에 대한 토론”

2세션

- 좌 장: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제1 발제: 김명하(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75
“계급 재생산 도구로 작동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 제2 발제: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103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 제1 토론: 정혜순(전 서울상도유치원 원장(공립단설)) 137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아동인권에 대한 토론”

- 제2 토론: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143
“발제 토론문”

- 제3 토론: 김영훈(의정부가톨릭성모병원 소아청소년신경과 교수) 155
“조기 영어 교육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제4 토론: 박성민(동아일보 기자, 유아 학부모) 161
“부모의 조바심에 꺾인 아이의 행복 ”

■ 제1세션 제1발제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¹⁾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I.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조사는 영아의 부모와 영아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조기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 한국 사회 전반에서 선행학습으로 나타나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어 왔음(이슬기·최현주, 2014; 김은영 외, 2016; 김은영 외, 2017)

- 그동안 유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우남희 외, 2005; 이부마·이수정, 2010; 이정림 외, 2015),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잠재 역량을 개발시켜준다는 부모와 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은 영아까지 연령의 하향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김은영 외, 2016; 서은경, 2016; 안주희, 2015) 이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의 대상 연령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24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개월 이상의 영아가 같은 반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1) 본 연구는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연구 공모에 참가하여 수행한 연구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법령에서 18개월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평가제에서는 영아반의 경우 집단활동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내외 자유놀이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과 평가제의 기준이 상이하며, 이는 영아의 발달 적합성을 고려한 평가제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법령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이나 문화센터, 학원 등 기관 프로그램, 가정방문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다양한 미디어, 책, 전자 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실태나 조기교육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 기간 지속된 후 영아의 발달 문제가 나타난 이후에야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함.

□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하여 방법과 시작 연령, 진행 시간 및 횟수, 비용, 부모와 보육교사의 인식, 쟁점,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그동안 진행되었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이 축소되기 보다는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연령 또한 하향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함

나. 개별 심층면담

-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의 영아반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5명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고 있는 부모 7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함.

- 심층면담 대상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다. 설문조사²⁾

-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아 교사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함.
- 부모 935명과 교사 417명이 응답하여 총 1,352명이 응답하였음.
-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구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전국의 영아 부모와 영아 교사에게 전달함.

3. 용어 정의 및 연구 대상 범위

- 본 연구에서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은 비용 부담의 주체, 실시 주체의 공적 기관 여부, 영아의 발달 적합성, 정규보육과정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가정에서 부모, 방문교사 등에 이루어지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제반 교육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하고자 함.
-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정의에 의해 영아가 경험하는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가정에서 부모, 방문교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제반 교육 활동을 연구 대상 범위로 함.

II. 설문조사 연구 결과

1. 조사 방법

가. 조사 내용

-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영유아 부모 7명과 영아 교사 5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담 및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경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의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음.
- 설문조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종류, 횟수, 시

2) 본 발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하며, 개별 심층면담 결과는 정책 방안 제시에 반영함.

간 등을 비롯하여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발달 적합성, 어린이집의 일과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교사의 인식, 과도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이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종류, 시기, 시간, 관련 정보 출처 등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지의 전체적 구성과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I-1>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내용
부모	가정에서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어린이집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일과에 미치는 영향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의 반응 및 발달적합성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인식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연령 하향화와 이유 과도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보육 교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일과에 미치는 영향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의 반응 및 발달적합성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연령 하향화와 이유 과도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나. 조사 대상

-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 935명과 교사 417명이 응답하여 총 1,352명이 응답하였음.

다. 조사 방법

- 예비조사는 영아 교사 3명과 영유아 부모 4명, 현장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총 10 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짐.

- 설문지는 구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보육통합시스템, 단체 카카오톡, 보육 및 양육 관련 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전국의 영아 부모와 영아 교사에게 전달함.

라. 자료 분석

- SPSS 20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교차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음.

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응답자의 어린이집 특성

- 부모와 교사의 어린이집 소재지는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부모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소재지는 서울 43.0%(402명), 경기 16.9%(158명), 부산 8.2%(77명), 인천 6.6%(62명), 대구 4.9%(46명) 등임.
-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소재지는 서울 60.7%(253명), 경기 13.9%(58명), 인천 12.2%(51명), 충남 3.8%(16명) 등임.

<표 II-2> 응답 부모와 교사의 어린이집 시설유형

단위 : 명/ %

어린이집 유형	부모		교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국공립	357	38.2	185	44.4
사회복지법인	47	5.0	7	1.7
법인 단체	46	4.9	5	1.2
민간	235	25.1	50	12.0
가정	57	6.1	39	9.4
직장	182	19.5	131	31.4
부모협동	4	0.4	-	-
잘모르겠다	7	0.7	-	-
합계	935	99.9	417	100.1

- 응답자의 어린이집 시설 유형은 부모의 경우 국공립과 민간, 직장의 순으로 비중이 높고 교사의 경우 국공립, 직장, 민간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시설유형이 국공립과 직장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함.
-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 평균은 63.8명이며, 현원 평균은 52.6명이며 담당하고 있는 아동 수 평균은 5.4명임.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 79.8%(746명), 아버지 20.2%(189명)이며, 맞벌이 63.6%(595명), 아버지만 일함 34.8%(325명), 어머니만 일함 1.4%(13명), 기타 0.2%(2명) 임.
- 부모의 자녀 연령은 평균 24.8개월이며,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은 평균 1년 5개월 임.
- 교사의 보육 총경력 평균은 9년 3개월이며 보육교사 경력은 8년 8개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경력 평균은 교사 4년 6개월 임.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부모 33.5세, 교사 32.7세 임.

<표 II-3> 부모의 자녀 연령과 교사의 담당 연령

단위 : 명/ %

구분	부모 자녀 연령		교사 담당 연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 0세	80	8.6	75	18.0
만 1세	220	23.5	128	30.7
만 2세	521	55.7	161	38.6
만 0,1세 혼합	17	1.8	22	5.3
만 1,2세 혼합	53	5.7	20	4.8
만 0~2세 혼합	44	4.7	11	2.6
합계	935	100.0	417	100.0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대도시, 지역은 서울, 유형은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의 응답자가 편중된 면이 있음.
- 부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중 직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부모와 교사의 응답 비교 시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조사 결과

가. 가정에서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 부모가 가정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은 책육아 55.0%, 문화센터 프로그램 51.9%, 영어 동영상 27.8%, 방문교사 25.6%의 순으로 나타남.

- 책육아와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없다는 9.1% 임.

<표 II-4> 가정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종 류	비율	종 류	비율
문화센터 프로그램	51.9	한글, 수 동영상	21.8
방문교사(오감놀이, 교구활동)	25.6	없다	9.1
책육아	55.0	기타	1.1
한글, 수 학습지	21.8	합계	165.7 (1,985)
영어 동영상	27.8		

* 복수 응답

<표 II-5> 가정에서 자녀가 처음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종 류	비율	종 류	비율
문화센터 프로그램	31.1	한글, 수 동영상	5.0
방문교사(오감놀이, 교구활동)	10.9	없다	9.0
책육아	33.2	기타	0.4
한글, 수 학습지	4.6	합계	100.0 (935)
영어 동영상	5.8		

□ 가정에서 자녀가 가장 처음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은 책육아 33.2%, 문화센터 프로그램 31.1%, 방문교사(오감놀이, 교구활동) 10.9%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처음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기는 12.1개월 임.

□ 가정에서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짓 수는 2가지 32.5%, 1가지 32.0%, 3가지 12.2%로 나타남. 4가지 이상은 4.4%로 나타났으며, 이용하는 것이 없다는 18.8% 임.

<표 II-6> 가정에서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가짓 수

단위 : 개/ %

가짓 수	비율	가짓 수	비율
1	32.0	5	1.5
2	32.5	6가지 이상	0.7
3	12.2	0	18.8
4	2.2	합계	100.0(935)

□ 가정에서 자녀가 교육용 미디어(동영상 영어, 한글 프로그램 등)에 노출되는 시간은 1일 평균 35.6분이라고 응답함. 연령에 따라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0세반은 평균 25.6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많아짐.

<표 II-7> 연령별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

단위: 분/명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F	Scheffe
만0세반	25.6	167	28.1	11.886(2)***	a<bc
만1세반	36.2	403	34.8		
만2세반	40.7	281	29.7		
계	35.6	851	32.3		

*** $p < .001$

* 연령별로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0-1세 혼합반 등 혼합연령반은 자녀의 월령을 계산하여 단일 연령반에 포함시켜 분석함. 예를 들어 11개월 영아가 0-1세 혼합반인 경우 0세반에 포함시킴. 본 조사의 시점을 고려하여 만0세반은 16개월까지, 만1세반은 17개월부터 28개월까지, 만2세반은 29개월부터임.

<표 II-8> 연령별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이 시작된 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만0세반	6.0	167	5.7
만1세반	11.0	403	7.6
만2세반	17.2	281	10.6
계	12.1	851	9.4

* 연령별로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이 시작된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0-1세 혼합반 등 혼합연령반은 자녀의 월령을 계산하여 단일 연령반에 포함시켜 분석함. 예를 들어 11개월 영아가 0-1세 혼합반인

경우 0세반에 포함시킴. 본 조사의 시점을 고려하여 만0세반은 16개월까지, 만1세반은 17개월부터 28개월까지, 만2세반은 29개월부터임.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동영상 영어, 한글 프로그램 등)에 노출이 시작된 시기는 12.1개월부터라고 응답함.

-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이 시작된 시기는 만0세반 6.0개월, 만1세반 11.0개월, 만2세반 17.2개월임. 연령에 따른 노출 시작 시기에 대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 노출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정에서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총 비용 평균은 61,700원으로 나타남.

부모가 가정에서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주변 영유아 부모 66.7%,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 64.5%, 유튜브 34.5%의 순으로 나타남.

- 주변 영유아 부모 못지않게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9> 가정에서 이용하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 정보 출처

단위: %(명)

구분	주변 영유아 부모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	유튜브	대중 매체 (신문, 잡지 등)	육아서	기타	계(수)
부모	66.7	64.5	34.5	16.5	14.4	1.9	198.5(1,858)

* 복수 응답

나.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1)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실태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특별활동 관련 사항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편 62.2%, 매우 많이 고려함 15.0%로 77.2%가 고려한다고 응답함.

- 2017년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의 영아 특별활동에 대해 조사한 전은경의 연구에서 특별활동 실시 여부가 어린이집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그렇다’ 23.8%, ‘매우 그렇다’ 4.3%로 ‘그렇다’는 응답을 28.1%가 한데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만으로는 어떤 고려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표 II-10>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특별활동 관련 사항 고려

단위: %(명)

구분	전혀 고려 안함	고려하지 않는 편	고려하는 편	매우 많이 고려함	계(수)
부모	4.8(45)	18.0(168)	62.2(582)	15.0(140)	100.0(935)

□ 자녀가 다니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영아반에서 부모의 61.6%, 교사의 53.2%가 특별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차이가 있음.

- 특별활동과 관련된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부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형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의 부모조사 결과 영아반 특별활동 이용률은 52.1%였는데 본 조사의 결과 61.6%로 더 높게 나타남.

<표 II-11> 이용하거나 근무하는 영아반의 특별활동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한다	안한다	계(수)	X ² (df)
부모	61.6(576)	38.4(359)	100.0(935)	8.347(1)***
교사	53.2(222)	46.8(195)	100.0(417)	

*** $p < .001$

□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영아반에서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 46.7%, 1세반 53.3%, 2세반 82.5% 임.

- 본 조사 결과 부모가 응답한 영아반의 특별활동 실시율은 이전의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0세반의 경우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11.8%인데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데 이러한 결과가 특별활동의 연령이 하향화 되고 영아 특별활동이 확대·강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후의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12> 이용하는 영아반의 연령별 특별활동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부 모		
	한다	안한다	계(수)
0세반	46.7(86)	53.3(98)	100.0(184)
1세반	53.3(236)	46.7(207)	100.0(443)
2세반	82.5(254)	17.5(54)	100.0(308)

* 부모의 경우 연령별로 특별활동 실시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0-1세 혼합반 등 혼합연령반은 자녀의 월령을 계산하여 단일 연령반에 포함시켜 분석함. 예를 들어 11개월 영아가 0-1세 혼합반인 경우 0세반에 포함시킴. 본 조사의 시점을 고려하여 만0세반은 16개월까지, 만1세반은 17개월부터 28개월까지, 만2세반은 29개월부터임.

- 유형별로 자녀가 다니는 영아반의 특별활동 실시율은 부모협동, 국공립, 직장에 비해 사회복지 법인, 민간, 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유형별 표본 수에 차이가 있어 이후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표 II-13> 유형별 자녀가 다니는 영아반의 특별활동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직장	가정	부모 협동	유형을 잘 모름
한다	57.7	66.0	60.9	66.8	59.9	77.2	0.0	14.3
안한다	42.3	34.0	39.1	33.2	40.1	22.8	100.0	85.7
계	100.0 (357)	100.0 (47)	100.0 (46)	100.0 (235)	100.0 (182)	100.0 (57)	100.0 (4)	100.0 (7)

- 지역별로 자녀가 다니는 영아반의 특별활동 실시율을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 중 응답자가 다수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4개 시도를 살펴봄.

- 서울의 경우 특별활동을 ‘한다’ 가 56.2%로 경기, 인천, 부산이 모두 64%~66%인 것에 비해 약 10% 정도 낮게 나타남.

<표 II-14> 지역별 자녀가 다니는 영아반의 특별활동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한다	56.2	64.6	66.1	66.2
안한다	43.8	35.4	33.9	33.8
계	100.0(402)	100.0(158)	100.0(62)	100.0(77)

* 지역별 특별활동 실시율을 비교하기 위해 17개 시도 중 비교적 응답자가 많은 4개 지역의 특별활동 실시율을 살펴봄.

<표 II-15> 특별활동 가짓 수

단위 : 명/ %

특별활동 가짓 수	부모	교사
1가지	15.1	14.4
2가지	43.6	30.6
3가지	27.6	41.0
4가지	9.7	11.3
5가지	2.6	2.3
6가지 이상	1.4	0.5
합계	100.0(576)	100.0(222)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가짓 수는 부모의 경우 2가지 43.6%, 3가지 27.6%, 1가지 15.1%의 순이며, 교사의 경우 3가지 41.0%, 2가지 30.6%, 1가지 14.4%의 순으로 나타남.

- 특별활동 가짓 수를 4가지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부모 13.7%, 교사 14.1%로 나타남.
- 부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가짓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1세, 2세 모두 2가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특별활동의 가짓 수도 많아짐. 2가지를 하는 경우가 0세는 21.7%, 1세는 24.8%이며 2세의 경우 2가지가 32.8%, 3가지가 30.2%로 나타남. 0세의 경우에도 3가지 이상을 하는 경우가 12.5%임.

<표 II-16> 연령별 자녀가 다니는 영아반의 특별활동 가짓 수

단위 : 명/ %

특별활동 가짓 수	0세	1세	2세
없음	53.3	46.7	17.5
1가지	12.5	10.4	5.8
2가지	21.7	24.8	32.8
3가지	7.1	12.0	30.2
4가지	3.8	4.5	9.4
5가지	1.1	1.1	2.6
6가지 이상	0.5	0.5	1.6
합계	100.0(184)	100.0(443)	100.0(308)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영아 특별활동의 종류는 부모의 경우 체육 61.3%, 오감놀이 53.0%, 음악 44.6%, 영어 39.1%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체육 79.3%, 음악 62.2%, 영어 42.3%, 오감놀이 34.7%의 순으로 응답함. - 부모와 교사 모두 체육, 음악, 오감놀이, 영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7> 영아반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 종류

단위 : 명/ %

특별활동 종류	부모	교사	특별활동 종류	부모	교사
체육	61.3	79.3	영어	39.1	42.3
음악	44.6	62.2	교구활동 (몬테소리, 가베, 레고 등)	17.4	3.2
미술	6.6	18.9	과학·수학	2.4	3.2
오감놀이	53.0	34.7	기타	3.1	7.0
댄스	8.9	1.8	합계	236.4(1,322)	252.6(559)

* 복수 응답

□ 특별활동의 비용을 알고 있는 129명의 교사가 응답한 월평균 특별활동 비용은 48,200원임. 현장학습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등을 함께 수납하다 보니 정확한 특별활동의 비용을 모르는 경우도 다수임.

- 특별활동의 비용을 알고 있는 388명의 부모가 응답한 월평균 특별활동 비용은 78,500원임. 현장학습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등을 함께 수납하다보니 정확한 특별활동의 비용을 모르는 경우도 다수임.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주간 영어 특별활동의 횟

수는 부모의 경우 2회 41.3%, 1회 37.0%, 3회 17.7%의 순이며, 교사의 경우 1회 50.7%, 2회 31.9%, 3회 9.7%의 순으로 나타남.

-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중 영어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137개소의 평균 1회 진행시간은 28.3분으로 나타남.

<표 II-18> 특별활동 진행 시간대

특별활동 진행 시간대	단위 : 명/ %			
	부모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전시간	119	20.7	11	5.0
오전시간/점심먹기 직전	9	1.6	-	-
오전시간/점심먹고 나서	10	1.7	1	0.5
오전시간/낮잠 자고 나서	11	1.9	1	0.5
점심 먹기 직전	83	14.4	13	5.9
점심 먹기 직전/점심 먹고 나서	8	1.4	2	0.9
점심 먹기 직전/낮잠 자고 나서	7	1.2	2	0.9
점심 먹기 직전/낮잠 자고 나서/오후 간식 먹고 나서	1	0.2	-	-
점심 먹기 직전/오후 간식 먹고 나서	-	-	2	0.9
점심 먹고 나서	126	21.9	86	38.7
점심 먹고 나서/낮잠 자고 나서	9	1.6	11	5.0
점심 먹고 나서/낮잠 자고 나서/오후 간식 먹고 나서	1	0.2	1	0.5
점심 먹고 나서/ 오후 간식 먹고 나서	7	1.2	5	2.3
낮잠 자고 나서	114	19.8	49	22.1
낮잠 자고 나서/오후 간식 먹고 나서	10	1.7	8	3.6
오후 간식 먹고 나서	61	10.6	30	13.5
합계	576	100.0	222	100.0

* 복수 응답 가능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대는 부모의 경우 점심 먹고 나서 21.9%, 오전시간 20.7%, 낮잠 자고 나서 19.8%의 순이며, 교사의 경우 점심 먹고 나서 38.7%, 낮잠 자고 나서 22.1%, 오후 간식 먹고 나서 13.5%의 순으로 나타남.

-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시간대가 오전시간, 점심 먹기 직전 등 오전시간을 포함한다는 부모의 응답이 43.1%로 교사의 응답 14.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오후에 진행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야하는 영아반의 오후 일과를 고려하여 오전에 진행하는 곳이 많다고 보여짐.

(2) 특별활동의 발달적합성

□ 특별활동이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절한지에 대해 부모는 적절한 편 76.4%, 매우 적절함 18.6%로 교사는 적절한 편 72.5%, 매우 적절함 17.6%로 응답하여 부모, 교사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매우 적절함’ 이 부모 18.6%, 교사 17.6%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표 II-19> 특별활동의 연령 및 발달 적합성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한 편	적절한 편	매우 적절	계(수)
부모	0.9	4.2	76.4	18.6	100.0(576)
교사	1.4	8.6	72.5	17.6	100.0(222)

□ 어린이집에서 적응기간인 3~4월 중 특별활동 강사를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영아가 있는지에 대해 교사는 20% 이상 12.2%, 20% 미만 61.7%, 없다 26.1%로 응답함.

- 적응기간 동안 낯선 특별활동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20> 특별활동 강사에 대해 낯설음과 두려움을 보이는 영아

단위: %(명)

구분	20% 이상	20% 미만	없다	계(수)
교사	12.2	61.7	26.1	100.0(222)

- 만1세 반과 만2세 반 영아가 3~4월에 특별활동 강사에 대해 보이는 낯설음과 두려움은 만1세 반의 경우 20% 이상이 25.0%, 만2세 반이 7.5%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어릴수록 적응기간 중 낯선 사람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이 크게 나타남.

<표 IV-20> 만1세와 2세 영아의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 비교

단위: %(명)

구분	20% 이상	20% 미만	없다	계(수)	X ² (df)
만1세반	25.0	52.8	22.2	100.0(36)	9.118(2)*
만2세반	7.5	64.6	27.9	100.0(147)	

* $p < .05$

* 만1세 반과 만2세 반에 대한 교사의 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혼합연령반은 제외하고 만1세반, 2세반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하였음.

<표 II-21> 특별활동 진행 시 영아의 집중과 참여 규칙 준수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루어지지 않는 편	이루어지는 편	매우 잘 이루어짐	계(수)
교사	0.0	9.9	73.0	17.1	100.0(222)

□ 특별활동이 진행될 때 영아가 활동 과정에 집중하여 참여하고 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교사는 이루어지는 편 73.0%, 매우 잘 이루어짐 17.1%로 90.1%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함.

-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9.9%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부모의 특별활동 상황에 대한 인지

□ 영아의 부모가 특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음+아는 편)는 응답이 교사 95.1%, 부모 80.7%임.

- 매우 잘 알고 있음이 교사는 51.4%인 데 비해 부모는 11.6%로 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 교사의 응답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II-22> 부모의 특별활동 진행 상황에 대한 인지

단위: %(명)

구분	전형 알지 못함	알지 못하는 편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계(수)	X ² (df)
부모	1.9	17.4	69.1	11.6	100.0(576)	150.821(3)***
교사	1.4	3.6	43.7	51.4	100.0(222)	

*** $p < .001$

(4) 특성화 프로그램의 진행 실태

<표 II-23> 응답 교사의 어린이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연령

단위: %(명)

반	%(빈도)	반	%(빈도)
만0세반	3.1	만1,2세 혼합반	4.6
만1세반	27.1	만0~2세 혼합반	1.2
만2세반	40.3	영아 특성화프로그램 안함	21.3
만0,1세 혼합반	2.4	계(수)	100.0(417)

□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담당하며 교재교구비는 부모 부담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연령은 만2세 반 40.3%, 만1세 반 27.1%의 순으로 나타남.

-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만1세반의 경우 16.5%인데 비해 특성화 프로그램은 27.1%로 만1세 반은 특별활동보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만2세 반은 특별활동이 64.5%이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40.3%로 특별활동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24>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한다	안한다	계(수)	X ² (df)
부모	43.7(409)	56.3(526)	100.0(935)	5.086(1)***
교사	50.4(210)	49.6(207)	100.0(417)	

* $p < .05$

□ 자녀가 다니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영아반에서 부모의 43.7%, 교사의 50.4%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응답함.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영아 특성화 프로그램의 종류는 부모의 경우 오감놀이 57.0%, 교구활동 41.8%, 요리활동 28.1%, 영어 26.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교구활동 46.7%, 오감놀이 35.2%, 도서활동 21.9%, 미술 21.4%의 순으로 응답함.

- 부모와 교사 모두 오감놀이와 교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25> 영아반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종류

단위 : 명/ %

특성화 종류	부모	교사	특성화 종류	부모	교사
오감놀이	57.0	35.2	한글·수 학습지	10.8	3.3
요리활동	28.1	14.3	생태활동	11.2	9.5
교구활동	41.8	46.7	댄스	3.9	0.5
도서활동	20.3	21.9	기타	2.6	8.5
영어	26.9	11.4	계	226.6 (678)	172.7 (363)
미술	24.0	21.4			

* 복수 응답

<표 II-26> 특성화 프로그램 가짓 수

단위 : 개/ %

특성화 프로그램 가짓 수	부모	교사
1	21.3	46.7
2	41.3	31.9
3	25.4	15.7
4	7.6	3.8
5	2.0	1.9
6 이상	2.4	-
합계	100.0(409)	100.0(210)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수는 부모의 경우 2가지 41.3%, 3가지 25.4%, 1가지 21.3%의 순이며, 교사의 경우 1가지 46.7%, 2가지 31.9%, 3가지 15.7%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 프로그램의 가짓 수가 4가지 이상인 경우는 부모 12.0%, 교사 5.7%로 나타남.

□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알고 있는 교사 102명이 응답한 월 평균 비용은 38,080원이며 비용을 알고 있는 부모 291명이 응답한 월 평균 비용은 63,290원 임.

-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비용 등과 함께 수납하는 경우 부모나 교사가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 부모가 이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주간 활동 횟수는 부모의 경우 2회 39.7%, 1회 37.2%, 3회 20.2%의 순이며, 교사의 경우 1회 45.8%, 2회 31.3%, 3회 9.6%, 5회 9.6%의 순으로 나타남.

- 교사는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1회 진행 시간은 평균 22.4분이라고 응답함.

□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절한지에 대해 자녀가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는 매우 적절 17.1%, 적절한 편 78.5%로 적절하다(매우 적절+ 적절한 편)는 응답이 95.6% 임.

- 그러나 ‘적절한 편’ 이라는 응답이 78.5%로 적절하다는 응답의 강도가 강한 것은 아님.

<표 II-27> 특성화 프로그램의 연령과 발달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함	부적절한 편	적절한 편	매우 적절	계(수)
부모	1.0	3.4	78.5	17.1	100.0(409)

<표 II-28>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시 영아의 활동 수행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스스로 수행 못함	스스로 수행 못하는 편	스스로 수행하는 편	스스로 매우 잘 수행	계(수)
교사	9.5	44.3	41.9	4.3	100.0(210)

□ 특성화 프로그램을 할 때 영아가 요구되는 활동을 교사의 지원없이 스스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교사는 수행하지 못한다(전혀 스스로 수행 못함+수행 못하는 편) 53.0%, 수행한다(매우 잘 수행+수행하는 편) 46.2%로 응답함.

- 전혀 스스로 수행 못함으로 응답한 교사는 9.5%에 달함.

- 부모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가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스스로 못한다(전혀 스스로 수행 못함+수행 못하는 편)는 교사의 응답이 46.2%임. 이러한 교사의 응답과 영아의 발달에 다수의 부모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표 II-29> 이용/근무 영아반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부모의 요구	20.2	44.4	380.397(6)***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39.3	19.7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원아모집 포함)	17.3	11.0	
교사의 보육 부담 완화	11.9	7.0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하지 않음	10.9	15.1	
기타	0.4	2.4	
합계	100.0(935)	100.0(417)	

*** $p < .001$

□ 이용하거나 근무하는 영아반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부모는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39.3%, 부모의 요구 20.2%,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 17.3% 순으로 교사는 부모의 요구 44.4%,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19.7%,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 11.0%의 순으로 응답함.

- ‘부모의 요구’와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은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는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교사는 ‘부모의 요구’를 가장 높게 응답함.
-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당사자인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응답이 부모 39.3%, 교사 19.7%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은 것을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음.

(5) 일과 운영

□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영아반에서 실외놀이가 1일 평균 38.3분 진행된다고 응답함.

- 교사가 응답한 실외놀이 시간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만0세 반 31.8분, 만1세 반 37.3분, 만2세 반 41.4분 등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실외놀이 시간이 길어짐.
-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운영 시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평가제 기준은 0세 반은 주 3회 30분 이상, 만1,2세 반은 매일 30분 이상임.

□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영아반에서 실외놀이가 진행되는 정도에 대해 충분한 편 56.9%, 매우 충분함 18.3%로 75.2%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표 II-30> 실외놀이 진행 정도 (부모)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함	잘모르겠음	계(수)
부모	1.2	18.5	56.9	18.3	5.1	100.0(935)

□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일과 진행에 대해 부모는 바쁘다(매우 바쁨+바쁜 편)는 응답이 24.3%이며, 교사는 바쁘다(매우 바쁨+바쁜 편)는 응답이 50.9%로 교사의 바쁘다는 응답이 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별활동 상황과 일과를 직접 경험하는 교사에 비해 부모는 정확한 일과 운영 상황을 모를 수 있으므로 ‘잘 모름’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18.8%의 부모가 ‘잘 모름’으로 응답함.
- 부모의 요구에 의해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많으므로 적지않은 부모가 ‘잘 모름’으로 응답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31>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일과 진행

단위: %(명)

구분	매우 바쁨	바쁜 편	여유있는 편	매우 여유	잘 모름	계(수)
부모	2.3	22.0	49.0	8.0	18.8	100.0(576)
교사	6.8	44.1	46.4	2.7	-	100.0(222)

□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일과 진행에 대해 교사는 바쁘다(매우 바쁨+바쁜 편) 37.2%, 여유 있다(매우 여유있음+여유있는 편) 62.8%로 응답함.

- 교사가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바쁘다는 응답이 50.9%인데 비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바쁘다는 37.2%로 나타나 특성화 프로그램에 비해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일과가 더 바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32>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일과 진행

단위: %(명)

구분	매우 바쁨	바쁜 편	여유있는 편	매우 여유	계(수)
교사	4.3	32.9	53.3	9.5	100.0(210)

□ 부모의 자녀가 이용하고 교사가 근무하는 영아반의 일과 운영 상황에 대해 부모와 교사

의 인식을 살펴봄.

- 실내자유놀이가 충분하다(충분한 편+매우 충분)는 응답은 부모 83.6%, 교사 88.3%이며, 낮잠시간이 여유있다(여유있는 편+매우 여유)는 부모 80.1%, 교사 80.5%임.

- 점심시간의 진행에 대해 교사는 바쁘다(매우 바쁨+바쁜 편)는 응답이 43.4%인데 비해 부모는 13.2%가 바쁘다고 응답하였음.

- 실내자유놀이와 낮잠시간은 충분하거나 여유있다는 응답이 점심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교사가 부모에 비해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바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런데 특성화 프로그램은 실내자유놀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영아중심, 놀이중심의 실내자유놀이 시간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

- 부모의 응답 중 ‘잘 모름’ 은 실내자유놀이 7.2%, 점심시간 16.8%, 낮잠 시간 12.2%임

<표 II-33> 부모와 교사의 일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잘 모름	계(수)
실내 자유 놀이	부모	1.2	8.0	61.6	22.0	7.2	100.0(935)
	교사	1.4	10.3	67.4	20.9	-	100.0(417)
구 분		매우 바쁨	바쁜 편	여유있는 편	매우 여유	잘 모름	
점심 시간	부모	0.5	12.7	54.1	15.8	16.8	100.0(935)
	교사	7.9	35.5	47.7	8.9	-	100.0(417)
낮잠 시간	부모	0.6	7.1	61.2	18.9	12.2	100.0(935)
	교사	3.1	16.3	67.1	13.4	-	100.0(417)

<표 II-34> 특별활동 가짓 수와 실내자유놀이의 충분성 (교사)

단위: %(명)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F
없음	3.2	195	0.6	3.367(6)**
1가지	3.2	32	0.4	
2가지	3.1	68	0.5	
3가지	3.0	91	0.7	
4가지	2.7	25	0.5	
5가지	2.8	5	0.8	
6가지 이상	2.0	1	-	
계	3.08	417	0.6	

** $p < .01$

* 실내자유놀이를 매우 부족 1점부터 매우 충분 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비교함.

- 특별활동 가짓 수가 많아질수록 실내자유놀이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아짐.
- 점심시간이나 낮잠 시간은 특별활동 가짓 수에 따라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 특성화 프로그램 가짓 수와 실내 자유놀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특성화 프로그램의 가짓 수가 많아질수록 실내 자유놀이 시간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아짐.

<표 II-35> 특성화 프로그램 가짓 수와 실내 자유놀이의 충분성 (교사)

단위: %(명)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F
없음	3.13	207	0.6	5.356(5)***
1가지	3.18	98	0.6	
2가지	2.99	67	0.6	
3가지	2.85	33	0.6	
4가지	2.38	8	0.5	
5가지	2.50	4	1.3	
계	3.08	417	0.6	

*** $p < .001$

* 실내자유놀이를 매우 부족 1점부터 매우 충분 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비교함.

(6) 교사가 담당하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 인지

- 영아반에서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는 아는 편이다 60.9%, 매우 잘 알고 있다 8.9%로 안다(매우 잘 알고 있음+아는 편)는 응답이 69.8%임. 교사는 아는 편이다 62.8%, 매우 잘 알고 있다 14.4%로 안다(매우 잘 알고 있음+아는 편)는 응답이 77.2%임.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에 비해 교사가 더 ‘부모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안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6> 담임교사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인지

단위: %(명)

구분	전혀 알지못함	알지못하는 편	아는 편	매우 잘 앎	계(수)	X ² (df)
부모	2.9	27.4	60.9	8.9	100.0(935)	14.607(3)**
교사	1.7	21.1	62.8	14.4	100.0(417)	

** $p < .01$

□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교육적 효과나 의미가 부모에게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부모는 전달되는 편 66.0%, 매우 잘 전달 14.2%로 전달된다(매우 잘 전달+전달되는 편)는 응답이 80.2%임. 교사는 전달되는 편 64.3%, 매우 잘 전달 14.6%로 전달된다(매우 잘 전달+전달되는 편)는 응답이 78.9%임.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7)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연령 하향화

□ 최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받는 연령의 추이에 대해 부모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음 72.9%, 변화가 없음 18.3%,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음 8.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음 79.9%, 변화가 없음 17.3%,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음 2.9%의 순으로 응답함.

- 부모와 교사 모두 대다수가 연령이 더 낮아진다고 응답함.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교사가 부모에 비해 더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함. .

<표 II-37> 사교육 및 조기교육을 받는 연령의 추이

단위: %(명)

구분	연령이 더 낮아짐	변화가 없다	연령이 더 높아짐	계(수)	X ² (df)
부모	72.9	18.3	8.8	100.0(935)	16.406(2)***
교사	79.9	17.3	2.9	100.0(417)	

*** p < .001

□ 최근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부모는 부모의 요구 44.4%,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26.5%,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 15.2% 순으로 교사는 부모의 요구 64.5%,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12.2%,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 11.5%의 순으로 응답함.

- 이용하거나 근무하는 반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부모는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을 교사는 ‘부모의 요구’ 를 가장 높게 응답한 데 비해 최근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 모두 ‘부모의 요구’ 를 가장 높게 응답함.

- 영아 특별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 제공’ 이 부모와 교사 모두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최근 추세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 라는 응답이 높

음.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교사의 64.5%가 부모의 요구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응답은 12.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표 II-38> 최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부모의 요구	44.4	64.5	64.821(4)***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26.5	12.2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원아모집 포함)	15.2	11.5	
교사의 보육 부담 완화	8.3	3.4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5.1	7.4	
기타	0.4	0.8	
합계	100.0(935)	100.0(417)	

*** $p < .001$

<표 II-39> 최근 부모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	29.0	24.7	21.638(7)**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 더 높아짐	39.0	47.2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	6.5	3.1	
부모가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	12.4	8.9	
코로나19 이후 태어난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불안	5.3	4.6	
발달에 적합한 교육 관련 정확한 정보 안내 부재	5.6	8.2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1.6	2.9	
기타	0.5	0.5	
합계	100.0(935)	100.0(417)	

** $p < .01$

□ 최근 부모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 교사 모두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 부모가 사

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임의 순으로 응답함.

-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 은 부모 39.0%, 교사 4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할 결과임.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어린이집에서 영아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부모는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 제공 60.0%, 원아모집 등 기관 운영에 영향 10.5%,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9.8%의 순으로 응답함. 교사는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 제공 51.6%,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19.7%, 원아모집 등 기관 운영에 영향 7.0%의 순으로 응답함.

어린이집에서 영아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부모는 대집단 활동이 영아의 발달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함 17.3%, 가정의 경제적 부담 15.4%, 교사가 담당하는 보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충분함 14.4%의 순으로 응답함. 교사는 대집단 활동이 영아의 발달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함 40.3%, 교사가 담당하는 보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충분함 13.7%, 오후 보육시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 10.1%의 순으로 응답함.

(8)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과 교육의 정책 방향 및 방안

<표 II-40>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안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영아 주도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홍보	15.1	18.5	51.643(4)***
영아 주도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부모교육 확대	31.7	45.3	
부모가 영아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29.5	15.3	
양육 스트레스 완화 육아정보 공유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15.3	9.1	
교육과정에서 연령에 적합한 충분한 교육 이루어짐을 안내	8.4	11.8	
합계	100.0(935)	100.0(417)	

*** $p < .001$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부모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31.7%,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29.5%, 양육 스트레

스를 완화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아 부모의 네트워크 활성화 15.3%의 순으로 응답함.

- 교사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45.3%, 영아 주도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홍보 18.5%,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15.3%의 순으로 응답함.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응답 내용을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 부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응답한 비율은 부모 55.2%, 교사 75.6%이며, 공공 놀이센터 확대,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등 부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부모 44.8%, 교사 24.4% 임.

- 부모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와 같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지원을 교사에 비해 높게 응답함.

□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31.9%, 실내외 놀이 활성화를 위한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설치 확대 27.1%, 부모에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 홍보 강화 15.9%의 순으로 응답함.

-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31.9%, 실내외 놀이 활성화 위한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설치 확대 22.1%, 부모에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 홍보 강화 20.6%의 순으로 응답함.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응답 내용을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및 환경 변화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응답한 비율은 부모 25.2%, 교사 36.2%이며,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및 환경 변화는 부모 59.0%, 교사 54.0% 임.

- 교사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부모에 비해 높게 응답함.

<표 II-41>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정책 방안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31.9	31.9	26.781(5)***
부모에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 홍보 강화	15.9	20.6	
영아 특별활동 없는 어린이집 운영비 인센티브 제공	12.0	6.0	
실내외 놀이 활성화 위한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설치 확대	27.1	22.1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부모 교육 강화	9.3	15.6	
영유아보육법에서 24개월인 특별활동 허용 연령 하한선을 높임	3.9	3.8	
합계	100.0(935)	100.0(417)	

*** $p < .001$

<표 II-42> 영아가 가장 즐겨워하는 활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단위: %(명)

구 분	실내 자유놀이	실외 자유놀이	담임진행 집단활동	외부강사 특별활동	담임특성화 프로그램	별차이 없다	계(수)	X ² (df)
부 모	12.4	52.2	10.9	12.0	6.8	5.7	100.0(935)	66.460(5)***
교 사	18.0	68.1	3.8	4.1	2.9	3.1	100.0(417)	

*** $p < .001$

□ 영아가 가장 즐겨워하는 활동에 대해 부모는 실외 자유놀이 52.2%, 실내 자유놀이 12.4%, 외부강사 특별활동 12.0%의 순으로 교사는 실외 자유놀이 68.1%, 실내 자유놀이 18.0%, 외부강사 특별활동 4.1%의 순으로 응답함.

- 실외 자유놀이는 교사와 부모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는 실외 자유놀이, 실내 자유놀이 모두 부모보다 높게 응답하였고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영아가 가장 즐겨워하는 활동이 실외 자유놀이인데 본 연구결과 1일 평균 자유놀이 시간이 38.3분에 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원인과 함께 확대 방안을 고려해봐야 함.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부모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3%, 실내 면적, 놀이공간 확대 26.1%, 자유놀이 확대 21.4%의 순으로 응답함.

- 교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72.4%, 자유놀이 확대 운영 12.9%, 실내면적, 놀이공간 확대 8.9%의 순으로 응답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응답이 부모에 비해 쏠림 현상이 나타남.

- 부모는 교사에 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인당 실내 면적 확대 및 실내외 놀이 공간 확대, 자유놀이의 확대 운영을 골고루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는 부모 10.4%, 교사 1.4%가 응답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부모 6.8%, 교사 4.3%가 응답 함.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1.4%만 응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표 II-43>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영아가 주도성을 갖는 자유놀이의 확대 운영	21.4	12.9	170.402(4)***
1인당 실내 면적 확대,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등 놀이 공간 확대	26.1	8.9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3	72.4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10.4	1.4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6.8	4.3	
합계	100.0(935)	100.0(417)	

*** $p < .001$

□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에 대해 부모는 충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 75.7%,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집 18.0%라고 응답함. 교사는 충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 90.9%,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집 4.1%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교사 90.9%, 부모 75.7%로 다수의 교사와 부모가 ‘충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 이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아 교육의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하는지 알 수 있음.

<표 II-44>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집	18.0	4.1	49.709(2)***
충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	75.7	90.9	
잘 모르겠다	6.3	5.0	
합계			

*** $p < .001$

□ 영유아보육법령의 특별활동 허용 연령 규정에 대해 부모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바람직한 조항이므로 유지 45.7%,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29.9%, 하향조정되어야 함 14.3%로 응답함. 교사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바람직한 조항이므로 유지 37.6%,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45.8%, 하향조정되어야 함 7.7%로 응답함.

- 부모와 교사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해 부모는 29.9%, 교사는 45.8%로 응답하여 차이가 나타남.
- 교사의 경우 연령 상향 조정이 45.8%, 유지 또는 하향 조정이 45.3%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45> 영유아보육법의 특별활동 허용 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부모	교사	X ² (df)
영아 발달에 적합한 바람직한 조항이므로 유지	45.7	37.6	35.933(3)***
영아 발달에 부적합하므로 특활 가능 연령 상향 조정되어야 함	29.9	45.8	
특별활동 가능 연령 하향 조정되어야 함	14.3	7.7	
잘 모르겠다	10.1	8.9	
합계			

*** $p < .001$

Ⅲ.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 개선 정책 방안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하고 영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개별면담 결과, 선행연구 고찰 등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주체인 어린이집과 부모 정부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함.

1.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영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 어린이집/정부

가. 부모와 교사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영아 특별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부모 61.6%, 교사 53.2%로 나타났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는 부모 42.7%, 교사 50.4%임.
- 어린이집에서 영아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 제공’ 이 부모 60.0%, 교사 51.6%로 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와 교사가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을 제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부모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3%, 실내 면적, 놀이공간 확대 26.1%, 자유놀이 확대 21.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72.4%, 자유놀이의 확대 운영 12.9%, 실내면적, 놀이공간 확대 8.9%의 순으로 응답함.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는 부모 10.4%, 교사 1.4%가 응답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부모 6.8%, 교사 4.3%가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교사들이 자유놀이의 확대 운영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욕구 못지않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실내 면적 및 놀이공간 확대와 같은 인적,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20년 가까이 많은 요구가 표명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또한 물리적 환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영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욕구’ 는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같이 왜곡된 욕구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모의

육구를 영아의 발달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부모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 교사 모두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 ‘부모가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임’의 순으로 응답함.
-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은 부모 39.0%, 교사 4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이며,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나 부모가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라는 특징도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어린이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 교육 정책은 전반적인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나아가야 함.

나. 발달권 보장을 위해서는 발달적합성에 대한 기준 공유할 필요

- 특별활동과 특성화 교육은 본 연구에서 90% 이상의 부모와 교사가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절하다(매우 적절+적절한 편)고 응답한 것과는 달리 교사의 73.9%는 어린이집에서 적응기간인 3~4월 중 특별활동 강사를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영아가 있었다고 응답함. 이 중에서 그런 영아가 한 반에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12.2%에 달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적응기간 동안 낯선 특별활동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할 때 영아가 요구되는 활동을 교사의 지원없이 스스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교사는 전혀 스스로 수행 못함 9.5%, 스스로 수행 못하는 편 44.3%로 53.0%의 영아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아의 발달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부모와 교사가 무엇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일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교사는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바쁘다’는 응답이 50.9%이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바쁘다’는 응답은 37.2%로 나타나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일과가 바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모는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의 일과 진행에 대해 ‘여유있는 편’ 49.0%, ‘매우 여유있음’ 8.0%로 57%의 부모가 여유있게 진행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4.3%의 부모만이 ‘바쁘

다’ (바쁜 편 22.0%, 매우 바쁨 2.3%)고 응답함. 그런데 부모의 18.8%는 ‘잘 모름’으로 응답하였으며, 평소 일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실내자유놀이 7.2%, 점심시간 16.8%, 낮잠 시간 12.2%임.

-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부모의 요구인데 비해 부모가 영아의 일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부모의 인식 변화를 ‘부모교육’을 통해 이루려는 노력과 과정은 있었지만 부모와 일상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와 상황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이 또한 소수의 부모가 일상생활을 접하거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임.

-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특별활동과 외부의 교재교구 업체가 제공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가짓수가 증가할수록 영아 보육과정의 핵심 중 하나인 실내 자유놀이를 충분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사와의 개별면담 과정에서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아들이 즐거나 식사와 낮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과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여건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음.

- 따라서 과도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아의 일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가 영아의 일상생활 상황과 특별활동 등이 일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라. 영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및 강화

- 본 연구에서 최근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부모는 부모의 요구 44.4%,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26.5%의 순으로 교사는 부모의 요구 64.5%,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12.2%의 순으로 응답함. 부모와 교사 모두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보다는 ‘부모의 요구’를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12.2%만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응답한 것을 주목해야 함.

- 부모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개별 면담 결과 비교적 그러한 부모의 요구가 적은 곳은 교사가 진행하는 교육과정 중에 영아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임. 교사가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하면서 영아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지 않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에 대해 부모는 ‘충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 75.7%,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집’ 18.0%로 응답함. 교사 또한 ‘충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 90.9%,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집’ 4.1%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를 교사의 1.4%, 부모의 10.4%만 응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아 교육의 정책 방향은 어린이집에서 영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정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본 연구에서 교사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부모의 69.8%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교육적 효과나 의미가 부모에게 전달된다’는 부모의 응답 또한 80.2%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지가 전달 자체가 미흡하다기보다는 보다 양질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적 효과나 의미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 특성화 프로그램의 확대가 영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마련

1)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다는 응답이 부모 43.7%, 교사 50.4%이며, 프로그램을 2가지 이상 하는 경우는 부모 78.7%, 교사 53.3%임.

- 선행연구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활동을 주목해온 데 비해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업체에서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를 제공하고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로부터 특별활동 강사가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외부업체가 다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나 교재 교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있음.

- 특별활동은 오후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정한 시간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전이나 오후 자유놀이 시간에 자유놀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월 4가지 정도의 만들기 교재를 소화하거나 주어진 교구를 가지고 개별로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해진 교재의 정해진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자유놀이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영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방안의 하나로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특성화 비용의 수납한도액이 영아와 유아의 구별이 없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영아와 유아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영아와 유아의 수납한도액을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충분히 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 확충 : 어린이집/정부

가. 영아기는 충분한 탐색과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며 영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의 욕구가 있음. 그러나 개별면담 결과 실내외의 공간이 충분치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가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영아가 가장 즐겨워하는 활동에 대해 실외 자유놀이는 부모 52.2%, 교사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실내 자유놀이로 부모 12.4%, 교사 18.0%로 나타남. 외 부강사의 특별활동은 부모 12.0%, 교사 4.1%로 나타남.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부모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3%, 실내 면적, 실내외 놀이공간 확대 26.1%, 자유놀이 확대 21.4%의 순으로 응답함.

- 또한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부모와 교사 모두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실내외 놀이 활성화를 위한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설치 확대’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정착되고 놀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내외 놀이공간의 확대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영아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아가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외의 공간이 충분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중에는 실내 공간이 작고 실외 놀이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다수임.

나. 실외놀이의 확대 방안과 함께 실외놀이터 등 실외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및 확대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실외놀이터의 확충을 위해서는 실외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인 경우 자체 또는 인근에 실외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사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임.
- 최근 출생률 감소로 인해 폐교가 생기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주거나 영유아 공용 놀이터 및 실내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원충족률이 낮아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한 반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줄고 여유 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정함으로써 한 반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수를 감소시키고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영아 1인당 실내 면적을 확대하고 원아 수 감소로 생기는 여유 공간은 영아가 사용할 수 있는 실내유희실 등으로 활용해야 함.

3. 접근성이 좋은 공공 놀이센터 확충 : 부모/ 정부

가. 본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 중 81.2%가 가정에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처음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기는 평균 12.1개월임.

- 영아가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짓수는 2가지 32.5%, 1가지 32.0%, 3가지 12.2%, 4가지 이상은 4.4%로 다수의 영아가 가정에서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부모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31.7%,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29.5%,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아 부모의 네트워크 활성화’ 15.3%의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의 공공 놀이센터 확대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공공놀이센터는 영아가 놀이를 하면서 또래나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영아에게 필요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른 부모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이 있음.

- 이는 부모가 영아 자녀의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 부담을 더는 수단으로 사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임.

나. 개별면담 결과 우리나라에도 공공놀이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린 영아를 데리고 가야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규모이더라도 접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놀이센터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함.

- 개별면담 결과 공공놀이센터의 한 형태로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설치 비용이 절감되면서 접근성이 좋은 방안임.
- 원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하거나 정원충족률이 낮아 여유 공간이 생긴 어린이집을 공공놀이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임.
-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다. 공공 놀이센터의 기능으로 부가시킬 수 있는 것은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주변 영유아 부모 66.7%,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 64.5%, 유튜브 34.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변 영유아 부모 못지않게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부모가 얻고 있는 정보가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검증은 취약한 상황이므로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공공놀이센터, 공공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라. 가정에서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를 축소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가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공놀이센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 되어야 함.

4. 육아 스트레스 해소와 육아 정보 공유를 위한 공공 네트워크 형성 : 부모/ 정부

가.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육아 스트레스나 고립된 육아로부터 오는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음.

- 개별면담 결과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문화센터 등의 기관이나 책육아와 같은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놀이센터 등을 기반으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고립감과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양한 공공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고립된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부모들 간에 필요한 발달에 적합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같은 어린이집이나 같은 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립 육아에서 탈피를 시도하기는 하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모들도 의사만 있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하며 지속성을 갖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본 연구 결과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부모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31.7%,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29.5%,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아 부모의 네트워크 활성화’ 15.3%의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반장(현재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로 명칭이 변경됨)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영유아 부모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양육지원에 효과적임.

5.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 상담, 홍보, 참여 : 부모/ 어린이 집/ 정부

가. 부모의 인식 변화 필요성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모의 요구’를 부모의 44.4%, 교사의 64.5%가 응답함.

- 특히 영아의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의 64.5%가 확대되는 이유를 부모의 요구라고 응답했으며,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응답은 12.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어린이집 영아반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의 가짓 수는 2가지 32.5%, 1가지 32.0%, 3가지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이상은 4.4%로 나타남. 이용하는 것이 없다는 18.8%에 그침.
- 영아반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는 이미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과 단체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추가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동영상 영어, 한글 프로그램 등)에 노출이 시작된 시기는 평균 12.1개월부터라고 하며,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이 시작된 시기는 만0세반 4.9개월, 만1세반 10.3개월, 만2세반 13.5개월로 연령에 따라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면담 결과 너무 이른 연령부터 시작되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사교육 및 조기교육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부모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사교육의 뿌리가 깊은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부모의 인식 변화가 쉽지 않다고 봄.
- 본 연구의 결과 최근 부모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 교사 모두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 ‘부모가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임’의 순으로 응답함.
-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은 부모 39.0%, 교사 4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결과이며,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 ‘부모가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라는 점 또한 지속되는 추세이므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고 강한 경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기존의 방안이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나. 영아의 발달과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상담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를 부모 31.7%, 교사 45.3%로 가장 높게 응답함.
- 개별면담 결과 영아의 발달 단계나 발달 특성, 놀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교육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모든 부모가 손쉽게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으나 과도한 정보 속에서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양육 정보와 교육 내용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교육뿐 아니라 우편, 온라인 비대면 교육, 유튜브 등 다양한 교육 수단을 이용하여 영아의 연령에 적합하며 뇌 발달에 기반한 발달권이 보장되는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어야 함.

- 개별면담 결과 부모 중에는 교육뿐 아니라 상담도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한 형태로 어린이집 등 늘 접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상담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다.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교사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45.3%, 영아 주도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홍보 18.5%,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15.3%의 순으로 응답함.

-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31.9%, 실내외 놀이 활성화를 위한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설치 확대 27.1%, 부모에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 홍보 강화 15.9%의 순으로 응답함.

-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31.9%, 실내외 놀이 활성화 위한 실외놀이터 실내유희실 설치 확대 22.1%, 부모에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 홍보 강화 20.6%의 순으로 응답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한 축임을 알 수 있음.

- 개별면담 결과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 나왔을 때 정부가 EBS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놀이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홍보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부모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알릴 때 그러한 홍보물이 효과적이었다고 함.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교육내용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요구됨.

라. 개방화를 통한 부모의 상황 공유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

- 최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받는 연령의 추이에 대해 부모 72.9%, 교사 79.9%가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음’ 이라고 응답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 대다수가 연령이 더 낮아진다고 응답함.
- 그동안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강조되어 왔으나 사교육 및 조기교육이 지속적으로 연령이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았을 때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름이 18.8%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부모 교육과 부모 참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등하원시 실내 개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일상적 상황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고 부모가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부모와 어린이집이 영아의 일상생활 상황을 공유하고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인식과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
- 개별면담 결과 부모의 인식 변화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짐.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 및 활동에 지속적이고 왕성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러한 신뢰는 교사와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임.

6. 영유아보육법의 영아 특별활동 허용 연령 24개월(18개월)을 상향 조정 : 정부

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24개월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함께 보육을 받거나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도 특별활동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법령에서 18개월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나. 그러나 평가제에서는 영아반의 경우 집단활동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내의 자유놀이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과 평가제의 기준이 상이하며, 이는 영아의 발달

적합성을 고려한 평가제의 기준과 법령이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의 특별활동 허용 연령 규정에 대해 부모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바람직한 조항이므로 유지 45.7%,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29.9%, 하향조정되어야 함 14.3%로 응답함. 교사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바람직한 조항이므로 유지 37.6%,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45.8%, 하향조정되어야 함 7.7%로 응답함.

- 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해 부모는 29.9%, 교사는 45.8%로 응답하여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아의 특별활동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사의 응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라. 개별면담에서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으며, 과도한 조기교육이 영아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아의 특별활동을 포함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허용 월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해 부모가 큰 효과를 기대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 금지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함.

- 그러나 현재 부모의 30%, 교사의 45% 정도만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음.

마.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가능한 정책 방안은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18개월 이상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3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의 영아 즉 만2세 반의 경우만 1가지를 하루 20분 이내 주 1회까지 허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현재 3~4 종류 이상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하루에 2가지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축소시킬 것을 제안하는 것임.

※참고문헌³⁾

- 김은영, 김근진, 윤지연, 김민지, 정광희 Chiu Chih Peng, Sajaniemi Nina Kristiina (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Ⅲ)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10.
-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II.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3.
- 서은경 (2016). 어린이집 영아대상 특별활동 실태 및 원장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주희 (2015). 영아기 사교육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남희 (2005). 우리나라의 유아 대상 조기교육 확산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생활과학연구 10권, 61-173.
- 이부미, 이수정 (2010).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85-107.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슬기, 최현주 (2014). 조기영어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발제문.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실태 및 보호 대책.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15.
- 전은경 (2017).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영아 특별활동 운영 실태 및 교사와 부모의 인식과 만족.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본 연구에서 다수의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하였으나 제시한 참고 문헌은 본 발표 자료에 언급된 것만을 제시한 것임.

■ 제1세션 제1토론

영아 사교육, 영아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우리나라 영아 관련 지표는 우리 사회의 역동적 특징과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출생율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영아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점도 조기화 되어 세계에서 가장 일찍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부모가 생애 초기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은 어린이집을 단순 보호기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육(보호+교육)기관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은 낮은 출생률, 영아의 조기 어린이집 경험, 사회와 부모의 기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보육의 질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영아 사교육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아대상 공교육/사교육을 구분하는 개념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영아 사교육 실태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상당수 영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에 있어서 우리는 영아 사교육을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인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영아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가는가에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영아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께서 정리해주신 소중한 연구결과 및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 개선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영아 사교육 연구 결과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첫째, 영아 사교육은 영아 보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별활동 필요 이유로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몸이 아파 오전 일과는 빠지더라도 오후 특별활동 시간에는 등원하겠다고 담임교사에게 특별활동 시간을 확인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영아반 특별활동이 발달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강사를 낮설어 하거나, 진행되는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적 질을 돌아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결과는 부모, 교사의 욕구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다른 방향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 사교육은 어떤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아의 주도적 참여와 관심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시간은 영아의 미성숙 가능성이 아닌 채워야 할 결핍으로 보는 것, 영아가 가진 본능적, 천성적 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적응을 고정된 환경(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자발성을 발달시키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교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영아가 잘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모나 교사에게 영아 사교육이란 영아에게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더 빨리 지향하며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는 정상(正常)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정상(頂上)을 추구하는 교육에 가까운 것입니다.

영아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관심, 현재의 삶과 관련성이 적은 경직된 교육에서 영아는 외적 동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잘 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방식입니다. 경직된 지식은 다른 능력에 전이되기 어렵습니다. 학습된 맥락이 넓을수록 다른 행동에 전이되고, 융통적으로 적용하며 영아의 앎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아에게 필요한 경험(교육)은 영아의 동기 스위치를 켜는 방향, 맥락적이고 융통적인 배움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놀이중심 보육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영아 교사, 부모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둘째, 영아 사교육은 어린이집 정규 일과운영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재원율이 높고,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상황임을 떠올려 볼 때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특별활동이 많을수록 실내 자유놀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루 일과 진행이 바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자께서 제안해주신 정책 제언 중 현실을 고려한 최소 규정으로 1일 20분 이내 주 1회만 허용하는 방식과 같이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여 특별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많은 보육교사들은 오히려 특별활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영아들이 충분히 놀이하고,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전체 일과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보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담임교사, 부모는 특별활동 시간에 영아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강사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각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 강사와 담임교사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활동 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에 각 반 영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는 특별활동 시간의 경험을 이어서 보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20여분 내외의 경험으로 영아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절된 경험을 잇는 노력이 있다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보육의 질에 있어서 교사의 효능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특별활동 강사 =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식하고, 자신은 그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특별활동 시간에 영아가 해당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신체운동, 미술, 음악 등의 경험은 소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특별활동의 분절적 운영상황에서 담임교사의 효능감 저하는 결국 담임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 새 시대를 위한 인식전환 방향

연구 결과에서 자녀수가 적어지고,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부모가 사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이므로 최근 부모에 의한 사교육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학습에 관한 인식전환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은 누구나 스스로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력 있게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 중심의 학습과는 차이가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특히 영아기는 학습을 위한 학습의 시기입니다.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깨닫고 앎을 이루어 갑니다. 이 시기 영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기반으로 영아의 삶과 앎을 접근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아들에게 행해지는 주입식 교육은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영아기 학습은 최종 목표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담은 것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방향입니다. 연구자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부모교육, 부모네트워크, 공공놀이센터 등의 방식을 통해 영아의 학습과 배움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나눌 필요가 큼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면 자녀는 배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고 통제하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실험을 통해 영아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중한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1세션 제2토론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현장, 영아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은?

김오경(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

저희 어린이집은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영유아들의 달라진 삶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며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보육기관입니다. 아이를 둘러싼 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한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찍이 가져왔으며, 이러한 실태가 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님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살펴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공동체 중심’ 보육 풍토를 조성하고자, 1:1 대면 상담, 일상적 개방, 영유아 부모 점심 지원, 다양한 부모 교육과 참여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 소소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협력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계셔서 든든함과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부모 대면은 제한적이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유아들의 바깥놀이 시간을 늘려가며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영유아 보육 공백을 만회하기라도 한 듯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코딩, 영어 문해 등으로 확대되어 달라진 어린이집 풍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조금 지친 마음이 들 즈음 감사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저도 같이 성장 혹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였고,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아이가 공동체를 배우고 질서를 습득하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귀하다는 것도요.

..... 중간 생략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집의 교육철학을 유지하시길, 또 이를 알아보는 보석같은 학부모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23년 7월 20일 00, 00,

00 엄마

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시고 올해 중순 잠시 해외 이주를 떠나신 부모님께서 전해 주신 편지글입니다.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다시 되돌려 받는 글귀를 읽으며, 부모와 차담하며 지낸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소수라도 잘 전해져서 작은 씨앗이 되기에 마음을 다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 뿐 만이 아니라, 오늘도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며 애쓰시고 계신 보육 현장의 우리들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제인 ‘영아 사교육 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은 영아기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꼭 필요한 주제이면서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연구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발제자처럼 영아의 사교육·조기교육 실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며 어린이집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를 드러보고자 합니다.

I. 특별활동의 의미 돌아보기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으로 해석되며 유의어로는 ‘각별, 독특’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의 의미는 단어풀이 자체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발제에서 보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특별활동을 77.2%의 높은 수치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맘카페 검색만 해보아도 기관에 관한 질문으로 특별활동의 유형과 가짓수를 묻고 있는 상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보육 철학이 어떤지 핵심인 기본 과정에 대한 질의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활동’에 더하여 ‘특성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영아들은 과연 충분한 탐색과 발견을 허용하는 자유놀이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 2세 후반인 영아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못 놀아”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니 결국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매체 학습을 하고, 이어서 ‘요리 영어’ 활동을 차량으로 이동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을 안내해주니 짜증이 줄고 어린이집을 즐겁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아들은 전 영역의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일상생활과 자유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아의 발달 적합성에도 적절하지 않은 ‘특별활동’의 용어를 해석상 독특하고 비중 있게 여겨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중립화, 객관화’ 하는 용어로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아들은 일상이 특별해야 하며, 똑같은 어린이집과 선생님을 만나도 하루가 특별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II. 특별활동 · 특성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연령 하향화의 원인과 대안 더 살펴보기

1. 보육기관 간 영아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연령 하향화

“원장님, 저 이제 만 2세 영아 특별활동 하기로 했어요. 방문 상담 부모님께서 특별활동은 안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상히 여겨 이 지역 주변 기관을 조사해 보니 영아반 특별활동을 안 하는 곳은 저희 기관 뿐이더라고요. 그나마 발달을 고려해서 오감활동으로 선택했어요. 이제 생존입니다. 저 이제 철학도 신념도 그런거 몰라요(농담 섞임).”

위 원장님은 영유아들의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고 ‘특별활동’ 안하는 어린이집으로 소신 있게 선언하시면서 개원 초부터 부모님들을 한 분씩 설득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분들도 보육철학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출생과 지역의 기관 공급 과잉으로 지역 내 기관끼리 원아 수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에서처럼 영아 중심이 아니라 부모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건강하게 놀이하며 자랄 수 있는 보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처럼 가짓수도 2가지 이상, 한글

학습, 영어 등 영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려는 영아들의 어려움이 늘 수 있습니다. 저출생의 흐름에서 이러한 보육기관 간 경쟁체제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아의 삶으로 미치기에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24개월 이상의 영아 즉 만 2세반의 경우 1가지를 하루 20분 이내 주 1회’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0세의 46.7%가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의 수치로 볼 때 현 실정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충된 제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에서 영아의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현 실정을 고려한 안으로서 발제자의 제안을 공감합니다.

2) 파견 강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활동 확대 및 연령 하향화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적은 학급 인원수로 인해 특별활동 강사를 파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로 강사 비용을 모두 1/n 계산하여야 하여 부모부담비용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가까운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함께 파견하는 방법이나,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연령을 내려 원아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재정적 부담도 줄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대 교사비용이 유아반보다 적으므로 강사파견의 최소 단가를 맞추기 위해 결국 원아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일수록 0세, 1세의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만 2세 영아의 특별활동을 ‘24개월 이상의 영아 즉 만 2세반의 경우 1가지를 하루 20분 이내 주 1회’로 제한하여 실효성을 거두려면 재정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산 간소화를 위한 업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구매 (비탄력적인 보육 지원금)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는 영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구 지원금이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쓰여지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정산의 불편함으로 인해 1인 10,000원 범위에서 업체의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됩니다. 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이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유아 놀이와 연계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영유아 놀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면 분절된 매체 학습으로 진행할 경향이 높습니다. 분절된

매체 학습이어도 정산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편한 방식의 선택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연결망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특성화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육 지원금의 정산 방식의 간소화도 제안해 봅니다.

Ⅲ. 국가의 책임 교육 측면에서

영유아시기의 놀 권리는 발달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영유아시기의 자녀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을까요? 영아 사교육 조기교육의 실태를 보면 특별활동을 기본교육으로 오해하고 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수치가 77.2%로 높습니다. 국가는 부모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거나 거의 방기 수준에 가깝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2019년 교육부가 함께하여 [EBS 놀이의 반란, 놀이의 힘, 놀이의 기쁨]을 제작하여 놀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였으나 홍보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때로는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영유아 놀이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혼돈하게도 합니다. 공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유치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의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의 보육, 교육 방향성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후 방과후 과정으로 분절된 특별활동으로 구성된 일과를 보면서 관련 현장전문가 입장에서는 배반감이랄까요? 방과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면 오전 일과와 통합된 연계과정으로 구성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통합적 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성 또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발달적합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공적 기관인 공립·병설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으로 특별활동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영향은 일반 사립 유치원과는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오후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유아 보육법상 ‘특별활동’의 기준이 평가제의 기준과 충돌되는 것처럼, 국가 수준의 제안은 그것이 영유아 삶의 기본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더욱 면밀하고 충실히 설계하여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화된 체제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외 시·도 지침 및 자치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살피며 “코로나가 끝났는데 왜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며 이의 운영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많은 보육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활동을 축소할 때 영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평안한 보내는 모습을 보며 그간의 반성과 미안함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모 자치구는 부모의 요구로 영어원어민 파견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파행적인 사업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적 기관의 사업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 정당성, 타당성이 높게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무게를 인지하여 보육 행정으로 지원할 때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제안되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니 이는 또 현장의 악순환으로 돌아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국가수준의 기본 교육은 내려놓고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유형과 가짓수만이 의미 있는 교육의 기준처럼 혼돈되기도 합니다.

‘영아 사교육 조기교육 실태’를 짐작은 했지만 연령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접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자료에서 0세 영아마저도 특별활동을 경험하고 있어서 놀라움이 큼니다. 지금의 어린이집 현장을 물러나서 보면 아동기의 인권마저 상실해가는 과열 경쟁의 잠재적인 출발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어른들의 선택이 아이러니하게도 영아기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사교육 연령 하향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책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영유아 행복을 위한 보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공신력과 힘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영아의 ‘사교육 조기교육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 제1세션 제3토론

토끼는 빠르게 잘 뛰어야 하나?

홍기목(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지며 연초에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재원생과 입학 원아 유치전쟁을 보면 더 실감난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외동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원아 모집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고심을 하는 상황이고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는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 보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또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부모는 자녀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잘 성장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조기교육을 더 많이 시켜주는 곳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현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제 심사자의 눈으로 본 이 현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지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부모의 욕구를 가능한 수용하려는 운영의 묘를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처럼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

현재 나타나는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는 왜 나타났을까? 아이들의 수가 적어서 부모님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이유로 꼽고 있으나, 부모님들이 경험한 교육을 살펴보면 누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학업성취에서 우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에 우선 순위에 서게 되고 좋은 대우와 더 많은 기회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신화가 우리를 마음속에는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어려서 남들보다 좋은 교육을 받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불문율처럼 부모들 마음속에는 강하게 믿음으로 남아있다. 특히 영어를 포함한 언어교육은 영아들이 엄마라는 첫말을 하고 난 이후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 만 2세가 되면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며 영어 특별활동이나 한글교육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기관에 제시한다.

이러한 양상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능한 빨리’ ‘아이들은 일단 배우면 도움이 된다’,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고 그러면 무시당한다’ 라는 생각이 부모에게는 불문을처럼 되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쉬지 않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능력과 기능이 발휘되려고 하면 걸기를 건너뛰고 뛰고 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요즘 아이들은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느린아이는 재촉을 받고 평범한 아이는 우수한 아이들에게 늘 비교되면서 빨리 뛰어가기를 요구받는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해” 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너는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이 노력해야돼를 강조한다. 그러면 우수한 아이들은 편안한가? 그렇지 않다. 언제고 뒤쳐 질 수 있으니 한시도 놓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교육의 풍토는 어느 아이들에게도 편안하거나 안정된 배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자조섞인 자기 비하와 타인 비하는 이미도를 넘었고 영유아교육에서도 특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아이들이 자신의 연령과 발달과 기질과 흥미에 관계없이 먹여치워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좀 비약이 심할 수 있으나, 아이들에게 고려되어야 할 발달과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조기교육인 특기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것의 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이 현장에서는 저출생시대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특별활동을 실시해야 부모를 만족시킬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특별활동이 점차 암암리에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과정 시간을 슬금슬금 넘어오려고 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24개월 이전의 영아에게 보장된 보육과정도 실제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양상이니 그보다 높은 연령의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영유아교육 보육, 교육기관이 무력할까? 부모들은 마냥 생각이 없을까? 교사들은 부모의 요구에 한없이 무너지는 무력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학습권과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돌봄을 주기 위한 노력은 크고 작게 늘 현장과 생활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견지하고 지켜내기에는 힘이 부친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와 교사, 부모를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활동 교육은 아동 권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의사존중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아영유아를 위한 활동인데 어느새 영유아에게는 ‘재미있어한다. 아이가 좋아한다.’ 만으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영유아의 놀이시설이나 놀이 공간이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다. 특히 실외놀이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놀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충분한 놀이시설 확충, 공공놀이시설이 지자체 중심으로 설치되고 개별 기관에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특별활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은 다양한 경험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좀 더 아이들이 잘 발달 되기를 위한 욕구이나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 특별활동 교사들이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교육에 전문가의 검수와 영유아에 맞는 활동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아의 발달은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며 신체, 운동, 정서, 인지 등의 발달에 대한 발달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 수준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면밀한 검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월령에 따른 발달과업이 중요한데 월령을 중심으로 개인의 발달상황이 간과되어 발달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이나 교사의 심리적 소진, 부모의 기관에 대한 불신은 고스란히 영아의 몫으로 남게 된다. 교육활동에 바탕이 되고 돌봄에 기초가 되는 영아의 발달 평가와 이를 위한 교육적인 개입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유아의 발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발달은

한 개인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발달문제, 기질적인 문제, 감각통합의 어려움, 양육자와의 안정애착, 양육자의 부재나 양육 능력의 문제)은 그야말로 교사 개인의 헌신과 부모의 자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제대로 필요한 내용은 양육자나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체계적인 영유아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부모, 교사, 전문사의 연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서 자기 발달을 안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특별활동과 조기교육을 이야기 할 때 적응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는 영유아에 대한 배려나 논의의 공간이 열리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다섯째, 부모는 중요한 교육의 주체이다. 연령별 부모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영유아와 체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를 잘 키우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라는 말로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교육의 세 주체가 협력적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영아반 입소 전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와 부모-자녀 놀이, 자녀놀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 양육에 반영하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아이 가방 속에 녹음기를 숨겨 보내고 교사가 민원으로 상처받지 않고 부모는 오해와 불신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세간의 사람들 누구하고 이야기 해도 아이들의 교육현실이 안타깝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 좌절의 마음으로, 아이들은 제 밥그릇 다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다, 아이가 크면 나아진다 등의 말로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슬쩍 밀어놓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교육의 상황은 기성세대들의 만들어 놓은 자화상이 투영된 것이다. 이제는 그 자화상을 다시 그리고 아프지만, 수정하여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권과 사회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현재 이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의 논의가 심시일반으로 한걸음이 열걸음 백만걸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제1세션 제4토론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 부추기는 환경,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만0세, 만1세 부모)

발제자는 가정에서의 사교육 이용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통한 사교육 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했다. 가정에서 가장 처음 교육 프로그램(책육아, 문화센터, 방문교사 등)을 이용한 시기가 12.1개월이라는 점, 교육용 미디어 노출 시기 역시 12.1개월이라는 점이 놀랍다. 또 어린이집 0세반의 특별활동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11.8%가 특별활동을 한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번 연구 조사에서는 0세반 46.7%가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영아의 사교육 이용이 유아 못지 않게 높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지만, 생후 12개월 전후의 영아 사교육 실태마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아 시기부터 사교육 의존성이 높아지고 조기인지교육을 하는 교육·보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부모 개인의 고민과 노력을 넘어서서 전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 없다. 특히 교육·보육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과제가 중대하다.

발제자가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 개선 정책 방안으로 제안한 여섯가지 안에 대해 찬성한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충분히 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의 확충, △접근성이 좋은 공공 놀이센터 확충, △육아 스트레스 해소와 육아 정보 공유를 위한 공공 네트워크 형성, △부모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영유아보육법의 영아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24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네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기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고 조기사교육의 폐해를 부모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6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기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다. 서둘러 이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필요한 대책은 ‘사교육 흡수’가 아니라, 과도한 조기사교육의 영향을 비용적인 측면과 발달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해 그 폐해를 밝혀 부모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아들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쌓아가다가 몇 년 후에 피해를 드러낸다. 영아 사교육의 폐해를 판단할 때 현재 영아를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유아 단계 또는 초등 단계에 올라가서 정서 행동 장애를 보이거나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경우, 영아 시기의 교육·보육 환경이 어떠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인과관계를 연구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들에게 영아기의 불필요하고 비효과적인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기인지교육과 아동정신건강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조기인지교육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물었을 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업 스트레스(95.7%)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69.6%) △낮은학습효과, 창의력 저하(60.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발달에 부정적(89.5%)’이라고 응답했다. ‘낮은 학습 효과(42.1%)’, ‘영어 학습 거부(21.1%)’도 응답했다. 조기인지교육을 받는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들에 물었을 때,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응답했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심각한 폐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조기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서둘러 추진되고 부모들에게 구체적이고 공신력있는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연구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용하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 정보 출처를 부모에게 물었을 때 △주변 영유아 부모(66.7%) △인스타그램, 카페 등 SNS(64.5%) △유튜브(34.5%)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16.5%) △육아서 (14.4%) 순으로 응답했다.

육아서도 적지 않게 육아 블로거나 육아 유튜버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출판을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모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육아 정보는 발달 전문가들의 검증을 확보한 정보라기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조기사교육 상품의 마케팅이 개입한 육아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발달 전문가의 검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결국 상품 판매의 마케팅 차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한 유아발달 전문가가 미니 강연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만 보고 클릭해서 영상을 보다가 이내 꺼버렸다. 유아 스마트러닝 상품의 개발에 참여하고 그 홍보차 만든 영상이었다. 마치 좋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강연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영상은 의도가 있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최종 목표는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와 출산 이후 육아를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고도 진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경험을 살펴볼 때, 임신과 출산, 어린이집 등원 과정에서 조기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부모교육용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지원 제도 안내, 영유아 건강 검진, 월령별 발달 상황 및 이유식 안내와 같은 내용이지, 영아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조기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달전문가들의 검증과 실증적인 연구를 확보한 정보가 부모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닌, 영

아의 건강한 발달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들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근거로 영아의 교육·보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가정에서의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이 미디어 사용과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점이다. 영아의 미디어 노출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가정에서 교육용 미디어에 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2세반 영아는 17.2개월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했는데, 만1세반은 11.0개월, 만0세반 영아는 무려 6.0개월에 노출되고 있다. 조기사교육의 문제가 비용 지출 문제 또는 가계 경제 부담 측면에서 심각한 것만이 아니라, 영아의 온전한 발달이 위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심각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스마트러닝 시장은 더욱 커졌고, 가정에서의 조기사교육 노출은 더 쉽고 편리해졌다.

2011년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 팝콘 브레인은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만든 용어로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 교수는 “41개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사회화가 중단되면서 (팝콘 브레인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석 교수도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감퇴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헬스경향, 2023.1.27.자 기사)

아마도 부모들은 교육용 미디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소아과학회는 영아의 미디어 노출에 대해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만 2세 미만의 경우 영상 미디어를 노출해선 안 되고 그 이후라도 2시간 이내만 가능하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 권고안은 2016년 개정되었다. 미디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개정일 것이다. 개정안은 미디어 노출 시기를 만 18개월로 낮추었다. 18개월까지는 가족과의 영상통화만 허용하도록 했다. 18개월부터 60개월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발달에 적합한 미디어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영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18개월

이후라 하더라도 아이 혼자 미디어를 시청하도록 두지 않고 부모가 함께 시청하며 상호작용할 것을 권고했고, 이 경우에도 시청 시간은 1일 1시간 이내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미디어 노출 가이드라인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노출과 관련한 유익과 폐해를 따져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면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장 확실한 영아 사교육 예방 대책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학습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취약자인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과 시민들의 생활 양태 역시 성숙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노동계를 살펴보자. <최저임금법>이 1986년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되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될 당시는 경제 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사회적 반발이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중고등학생도 최저임금법을 알고 자신의 노동 가치가 보호되고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어떠할까. 직장갑질119는 공공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4.5%였는데, 법시행 이후인 2021년 6월에는 29.6%로 14.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양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법은 민간에 적용되는 법인데, 올해 7월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사회에 법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발표했다. 법으로 노동자가 보호받는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함을 요청한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시행은 법이 근거함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실효성을 발휘하는데에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근거함으로 인해 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사회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동체 문화

를 바꾸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까지 우리 사회는 성숙해져갈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데, 우리 사회 취약자라고 할 수 있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동학대 문제를 제외하고는 영아 교육·보육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발전과 성숙이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는영아 사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심각한데, 국가와 우리 어른들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영아 사교육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조기인지교육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권리, 쉼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첫째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 가장 난감했던 문제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 었다. 특별활동 중에서도 특히 영어나 수학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찾아보았는데 별로 없었다. 십여곳을 찾아보았을 때 한두곳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늘 토론을 위해 다시 인근 어린이집 10곳을 살펴보았다.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들어가 보 육과정 공시를 확인했을 때 10곳 중 8곳은 영어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다. 2곳이 1세반부터 영어 특별활동을 하는데 주 1회 30분씩이었다. 6곳이 2세반 영어 특별활동을 하는데 주2회 또는 3회를 하고 있었다. 또 동네 가까운 곳에 큰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 많이 다니고 있다. 이곳은 2세반이 주 4회 영어 특별활동을 하고, 3세부터는 주 5회를 하고 있다. 수업이 20분씩인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다. 또다른 민간어린이집은 2세반 영어를 주 3회 40분씩 하는 곳도 찾아볼 수 있었다. 2세반 아이들이 40분씩 과연 잘 집중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인 것인지 부모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 특별활동 시간이 20분이든 40분이든, 문제는 이러한 특별활동에 대해 부모는 그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교육적 효과와 유익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키즈노트 알림장을 통해 교사가 올려주는 몇 장의 사진과 몇 줄의 문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아이

가 집에 와서 영어 단어 한두개를 말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적 효과가 있노라고, 그래도 최소한 아이를 위해 영어 교육을 하고 있노라고 만족하기에는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부모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영아의 특별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교사가 51.4%인데 비해 부모는 11.6%로 큰 격차가 있었다. 또 특별활동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실내자유놀이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교사들이 응답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부모들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일까. 부모들이 특별활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관은 기관의 교육철학을 무시한채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기관이 나서서 원생 유치를 위해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홍보하는데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영아 보육 현장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특별활동, 특히 조기인지교육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부모와 기관의 선택에 맡겨두기만 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의 조기교육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유아 인권보장 및 과잉학습 방지를 위해 유아교육법/학원법/평생교육법/영유아보육법 4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1일 40분 이상의 인지교육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적용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전면금지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통제가 심하다며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 최약자인 영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영아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교육·보육 기관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한 개인이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실천하는 일상의 노력이 너무도 쉽게 침범받고 훼손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육아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는 순간, 각종 다양한 상품 마케팅에 노출된다.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도 내 집앞 가까운 어린이집이 가장 좋은 어린이집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활동을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고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먼 곳을 찾아나서야 하는 고충을 경험했다.

첫째를 출산하고 접한 육아 환경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환경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배워가기보다, 아이를 낳고 접하는 환경은 부모의 뜻대로 만든 안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 개인의 인식 문제라고 탓하기보다, 건강한 발달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도와 문화를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시급하다.

■ 제1세션 제5토론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

박지혜(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기관)

■ 제2세션 제1발제

계급 재생산 도구로 작동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김명하(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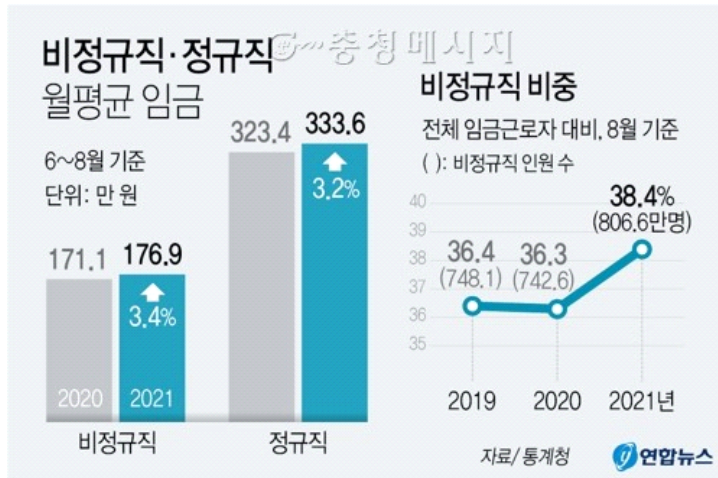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I. 합계출생률 0.78명이 던지는 화두

1. 근대 너머를 요구하는 새로운 인공지능·AI 시대 속 여전한 근대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0.78명이다. 2015년 이후 합계출생율은 빠른 속도로 급감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사회 복지 부담의 증가 등 저출생에 대한 불안은 인간을 노동력으로 사유하고 노동자 임금에 대한 세수로 국가를 유지하는 근대적 경제 개념에 기인한다.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은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 생산수단이나 노동자를 소유하지 않고도 자본을 확대하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시장을 독식해 다수를 플랫폼 노동자로 만들며 노동환경의 질 저하를 유도했다(그림1). 의료, 기술개발 등 고학력을 바탕으로 한 소수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일자리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산업 변화에 따른 대안으로 구글세, 로봇세, 부유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기본소득 등을 통해 안정적 소비층을 확보한다는 전략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나 우리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1> 비정규직 현황⁴⁾



김영은 기자 / 2021102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출처: 연합뉴스(2021)

오히려 한국은 일자리 자체의 축소와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고조시키며 소위 좋은 직업, 좋은 대학을 두고 벌이는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승자독식, 능력주의에 기반한 독특한 한국형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는 복지의 영역마저도 개인의 능력주의에 귀속시켰다. 돌봄·양육은 여성의 독박육아로 작용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 사회는 맘춤, -린이 등의 혐오와 차별로 아동기와 양육의 과정을 부정했다, 인간을 노동력으로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더욱 좁아진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과 그로인한 개인의 피로감과 분노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합계출생률 0.78명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맥락의 구체적 결과다.

2. 헬조선이란 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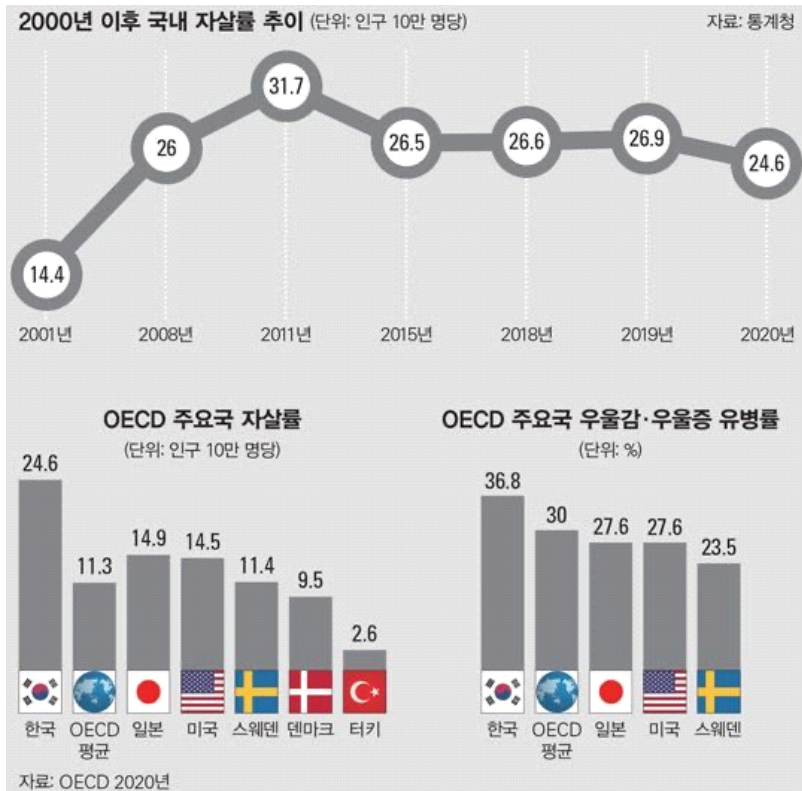
UN 발간 ‘2022 세계행복보고서(2021 World Happiness Report)⁵⁾’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104개국 중 53위,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다. 소득과 기대 건강 수명은 상위권이

4) 광민서(2021.10.26.). 비정규직 평균 월급 177만원... 정규직과 격차 157만원 역대 최대. 연합뉴스. <http://www.yna.co.kr/view/AKR20211026091800002> 에서 2023.8.8. 발췌

5) John F. Helliwell, Richard Layard, Jeffrey D. Sachs, Jan-Emmanuel De Neve, Lara B. Akinin, and Shun Wang (2023). World Happiness Report.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worldhappiness.report> 에서 2023.8.7. 발췌

나 사회적 지원과 관용, 선택의 자유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빈약한 공적 지원, 관계에서의 엄격함, 다양한 개성보다는 사회적 관습이 강조되는 억압적 분위기 등이 **한국인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상위권에 속한 경제 순위와 달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란 오명(그림2),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 자살(표1)** 등 더 이상 놀랍지 않은 통계 또한 이를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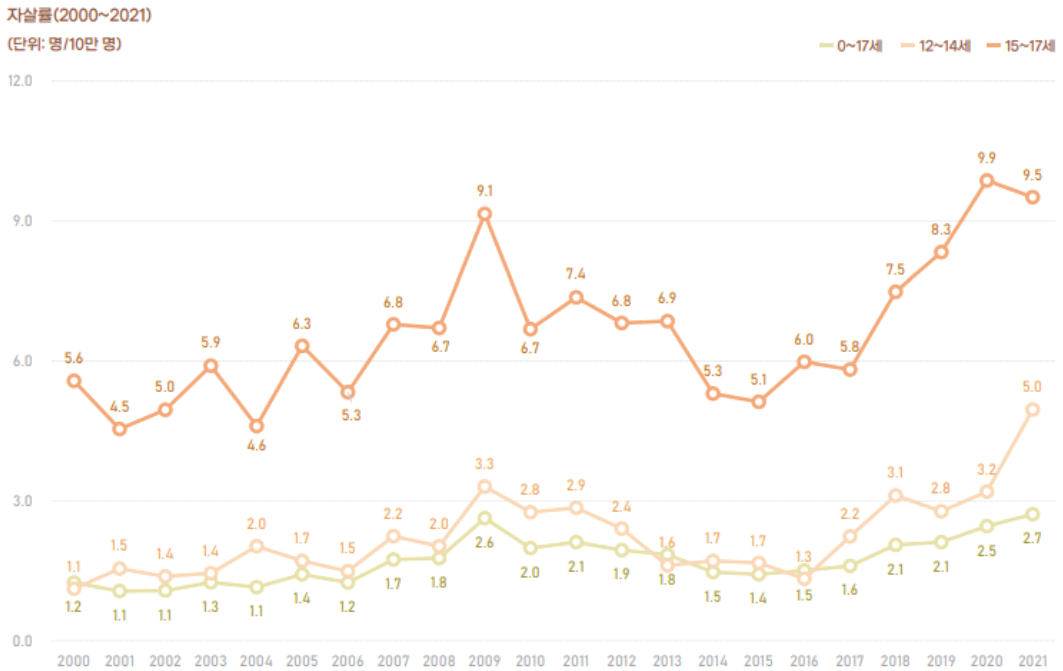
〈그림2〉 2000년 이후 국내 자살률 추이⁶⁾



출처: 시사저널(2022)

6) 노진섭(2022.5.18.). 10년 새 자살률 100% 증가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시사저널 1700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338> 에서 2023.8.7. 발췌

<표1> 아동·청소년 자살률 추이(2000-2021)⁷⁾



출처: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3. 무한 경쟁의 아동·청소년기

아동·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은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간과한 채 여전히 **능력주의**에 기반한 **놀이와 여가에 대한 무관심과 경쟁적 교육환경**이 주요 원인이다. 2018년 발간된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⁸⁾”는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23명의 아동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394명의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을 한 아동의 의견과 1472부의 아동설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이고, ‘자살하고 싶다’, ‘애들은 가서 공부나 해’,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 ‘점수에 꿈을 맞춰’ 라는 표제어로 구분한 5개 소주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 소제목의 표제어나 보고서의 제목을 통해

7)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act=view&list_no=422751 에서 2023.8.7. 발췌

8)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2018).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국제아동인권센터, unicef,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incrc.org/resources/?mod=document&uid=147> 에서 2023.8.7.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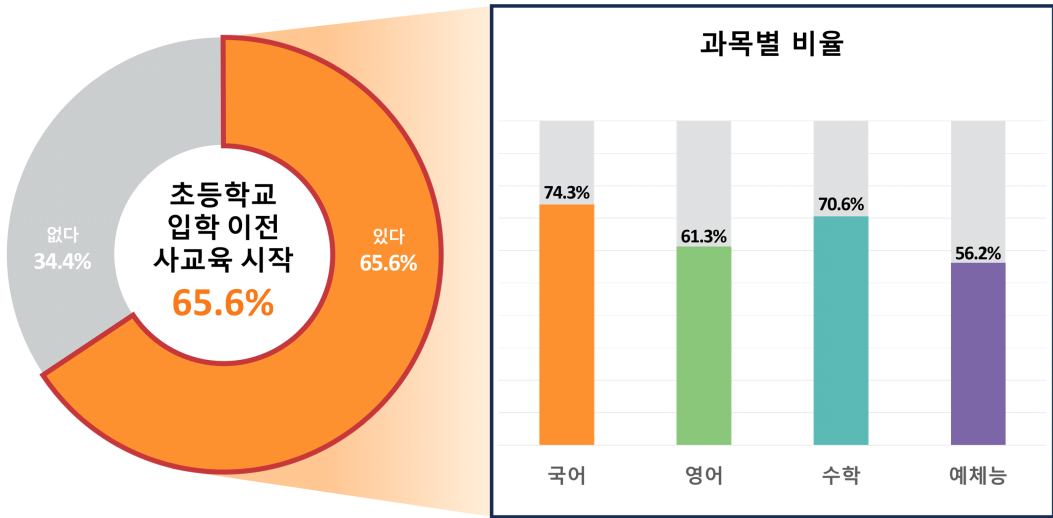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아동 대부분은 근대적 가치관에 입각한 **학업에 대한 압력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4. 능력주의의 시작, 유·아동기

특히, 막 아동을 벗어난 **12-14세 자살률**은 그 자체로 충격임에도 **증가추세**(2020년 3.2명 → 2021년 3.5명)에 있다(표1). 10대 미만 **소아 우울증 및 소아 불안장애** 환자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소아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1140명) 대비 2021년(1940명) 35.1%, 10대 미만 소아 불안장애 환자수도 2017년(2154명) 대비 2021년(3398명) 57.8%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⁹⁾. 2023년 사교육 실태조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 원실, 2023)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5.6%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자녀의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결과와도 무관하기 어렵다(그림3). 과목을 살펴보면 국어(74.3%),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순으로 **인지중심**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pageIndex=1#none> 에서 2023.8.7. 발췌

<그림3> 사교육 시기 및 과목별 사교육 비율¹⁰⁾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2023)

5. 교육불평등의 구체적 증거, 사교육의 지역적 편차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모든 사교육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입학과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울 4년제 대학에 국한되어 있다는 연구¹¹⁾ 및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서울 48.7%, 경기 28.2%, 서울 중 강남구 출신 비율은 13.05%라는 결과¹²⁾와 이어지며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한다. ‘SKY 캐슬’을 향한 트랙은 애초에 서민의 삶 바깥에 있음에도 학벌과 학력의 차별 구조는 영유아기부터 모두를 무한 경쟁에 연루시킨다.

6. 사교육과 경쟁주의의 공격, 정서적 내상의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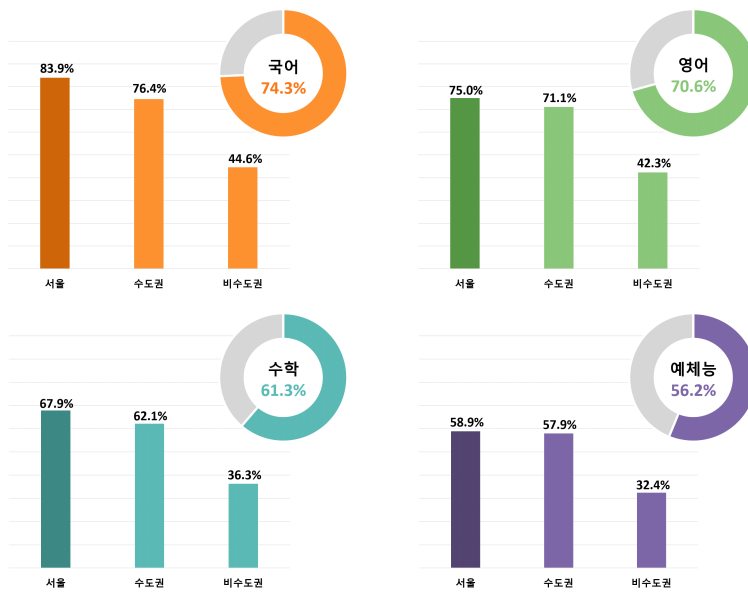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2023.7.0).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lt9&bmode=view&idx=15662495&t=board> 에서 2023.8.7. 발췌

11) 박경호 외(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37899> 에서 2023.8.8. 발췌

12) 정수연(2023.6.23.). 서울대 정시 합격자 약 절반 서울 출신에 그 중 13%는 강남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3120900001?input=1195m> 에서 2023.8.8. 발췌

그러나 SKY 캐슬에 진입한 소수 엘리트 집단이 승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는** 2015년(275곳) 대비 2023년(498곳)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이 중 10%(56곳)가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음에도 우울증·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워낙 많아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등 서울 지역 대학 병원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¹³⁾이란 사태가 이를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승자 없는 경쟁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피해는 특정 집단 뿐 아니라 사교육, 인지교육, 경쟁적 환경에 이른 시기부터 노출된 **영유아기 전반에 작동된다**. 그렇게 누적되는 내상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이어지며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4> 사교육 수도권·비수도권 비교⁷⁾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2023)

13) 최은경(2023.6.20.). 청소년 우울증 19% 증가... 문제는 입시 스트레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6/20/HAU2YK5XN5FABBFU3L46MJTYC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에서 2023.8.8. 발췌

7. 이 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시대착오적 SKY 캐슬은 소수에게 주어진 일그러진 특권 잔치에 불과한데도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피로감은 온 나라 구석구석에 퍼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며 반복 누적되었다.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보이는 능력주의는 사회적 관용을 파괴하며 더욱 엄격한 잣대로 각자도생을 일반화한다.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고학력과 학벌, 안정적 직장을 얻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의 누적된 피로감과 열패감, 고립감은 행복하지 않은 일상, 살고 싶지 않은 삶으로 축약되어 합계출생률 0.78명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며 여타 사교육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사례를 통해 유아기까지 내려온 조기 사교육의 실태를 제시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조장하는 사교육 열풍과 그 안에서 손상되고 훼손되는 아동기를 드러내어 논의하고자 한다. 변화된 사회 체제에서 합계출생률 0.78명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문명으로 ‘적응’해야 할 과제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불안을 자분으로 한 일상화된 사교육과 경쟁중심 교육환경에서 수단으로서의 ‘인구’를 존재 자체로서의 ‘인간’으로 사유하는 방법론으로 아동인권의 회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현황 - 계급 재생산 도구로서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 유아대상 사교육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지역적 격차를 드러냄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적 격차를 드러냄. 강남·서초(26.4%), 강동·송파(17.9%) 등 전통적 부촌에 집중 분포
- 월평균 학원비 상위 5곳은 모두 월평균 학원비의 2배이상에 해당되며, 1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서초에 분포. 1위를 차지한 어학원 역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해 강남·서초와의 접근성이 용이
- 유아대상 영어학원 연간 총 학원비는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의 2배에 해당하며, 1위 기관의 연간 총학원비는 4.7배에 해당
- 부모의 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진입에 주요 역할

- ‘사립초-국제중-특목고·자사고-명문대’로 알려져 있던 한국사회 엘리트 코스의 출발점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자리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계급 이동보다는 계급 재생산으로 기능
- 계급 재생산 과정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은 소외되며 손상된 아동기를 보편화

1. 유아대상 영어학원 진입을 위한 경제적 조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2022년 329개소로 이는 2021년 대비 18개소가 증가한 수치였다(표2).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8832원(표3), 연단위로 환산하면 약 1,427만원으로 4년제 연평균 대학등록금 675만원의 약 2배로 최고액학원(3,179만원)의 경우에는 무려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그림5).

<표2> 서울시 반일제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8개년 현황 (2015-2022)

교육 지원청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개)								증감 ('22-'2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강남서초	강남서초	41	49	66	87	84	85	86	87	▲(1)
강동송파	강동송파	34	46	37	46	52	51	54	59	▲(5)
강서양천	강서양천	27	17	23	24	25	25	29	34	▲(5)
서부	은평서대문마포	23	18	23	24	29	28	30	30	-
성동광진	성동광진	17	20	18	23	22	26	28	30	▲(2)
중부	종로중용산	18	23	19	21	17	19	24	25	▲(1)
남부	영등포구로금천	18	20	17	19	15	16	16	15	▽(1)
북부	노원도봉	11	14	13	14	13	12	12	12	-
동작관악	동작관악	12	8	13	14	13	15	16	17	▲(1)
성북강북	성북강북	13	12	13	12	11	11	10	10	-
동부	동대문중랑	10	10	9	11	7	6	6	10	▲(4)
합계		224	237	251	295	288	294	311	329	▲(18)

[표3]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 7개년 현황 (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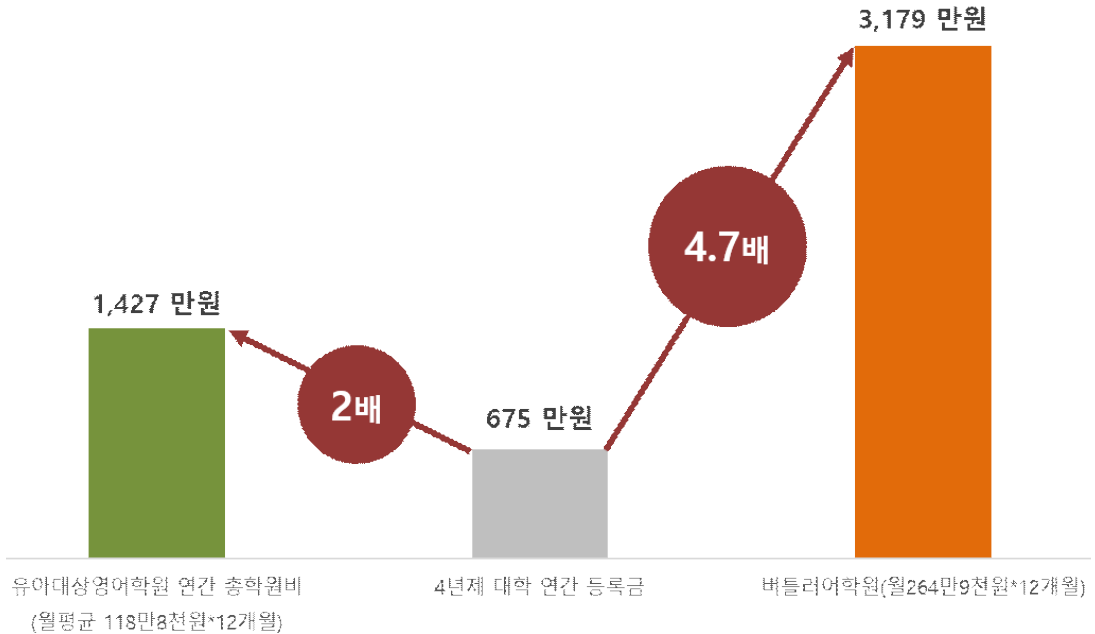
항목	비용 (원)							증감(22-2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월평균 학원비	1,030,244	1,022,942	1,037,020	1,065,243	1,095,855	1,126,427	1,188,832	▲62,405 (약5.5%)

[표4]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 상위 5곳 5개년 현황 (2018-2022)

비용 단위: 천원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원	지역	비용	학원	지역	비용	학원	지역	비용	학원	지역	비용	학원	지역	비용			
1위	게이트대치	강남	2,243	게이트대치	강남	2,243	버러틀	동작	2,649	버러틀	동작	2,649	버러틀	동작	2,649			
2위	게이트입구정	강남	2,243	게이트입구정	강남	2,243	브이아데미	라트카	강남	2,525	게이치	이대	강남	2,627	브이아데미	라트카	강남	2,525
3위	게이트사촌	서초	2,243	게이트사촌	서초	2,243	비컬지서초	씨리잇	서초	2,300	게이치	이대	강남	2,627	비컬지서초	씨리잇	서초	2,450
4위	비씨컬리지서초	서초	2,140	비씨컬리지서초	서초	2,140	게이치	이대	강남	2,243	게이치	이대	서초	2,626	SICA	서초	2,400	
5위	리틀핸즈	강남	2,100	서강대초	서초	2,100	게이치	이대	서초	2,243	브이아데미	라트카	강남	2,525	게이치, 초구정	이대, 서초	강남, 서초	2,393

<그림5>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학원비 vs 4년제 대학등록금 비교(2023.1.1.기준)



2. 계급 재생산으로 기능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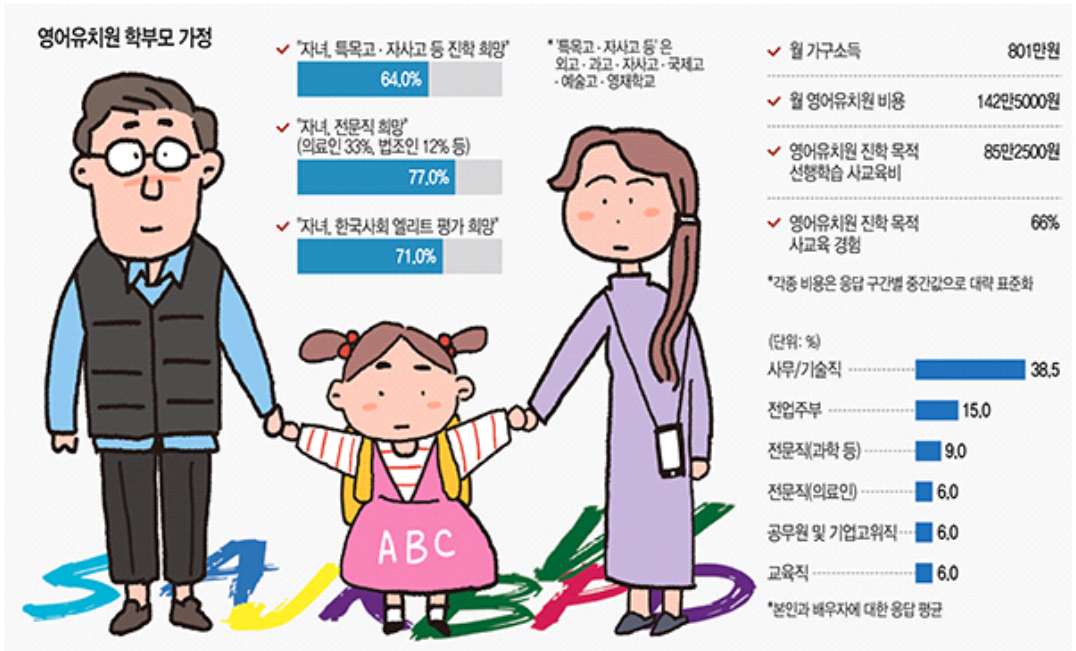
2023년 2월 국민일보는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100명, 어린 시절 실제 영어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성인 100명을 설문조사¹⁴⁾했다. 자녀를 유아대상 유아학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중, 학원 진학을 위해 ‘사전 사교육’을 했다는 응답이 66%, ‘사전 사교육’ 비용은 평균 85만 2500원이었고 ‘600만원 이상’을 썼다고 응답한 이도 2%였다.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다수는 자녀가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했다. 외국어고(22%), 국제고(16%), 과학고(12%), 자사고(8%), 예술고(4%) 진학을 바라는 부모가 조사대상자의 6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자녀가 향후 한국사회의 엘리트로 평가받길 원한다고 했다. 의료인(33%), 과학 등 기타 전문직(32%), 법조인(12%) 순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활동 분야가 나타났다.

변수용, 정희진, 안지빈(2018)¹⁵⁾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보낸 경험이 있

14) 이경원, 이택현, 정진영, 박장군(2023.3.5.). 3살부터... 영유 학부모 66% “아이 합격 위해 사교육”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20547&code=61121111&cp=nv> 에서 2023.8.8. 발췌

는 부모는 이후 자녀를 일반중이나 일반고에 비해 국제중과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변수용, 정희진, 정진리(2020)¹⁶⁾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은 사립초 진학 혹은 졸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고, 사립초 졸업은 특목고·자사고 진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림6> 유아대상 영유학원 학부모 기대



출처: 국민일보(2023)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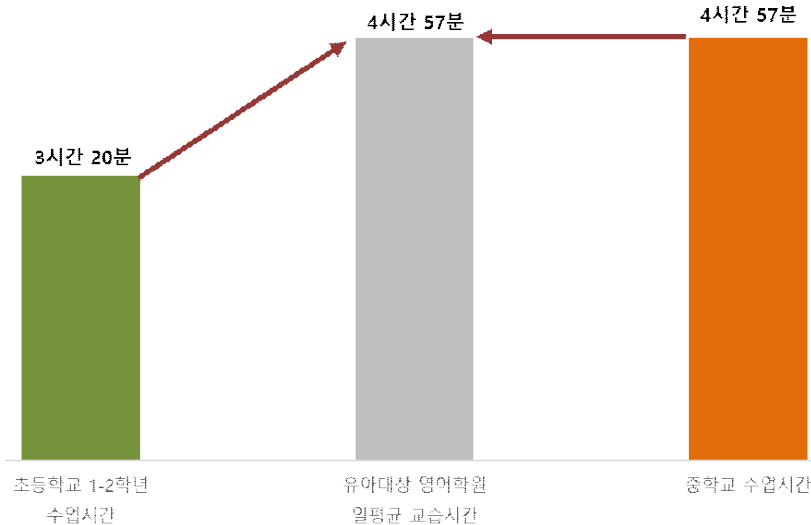
3. 유아기 손상의 과정

사격세의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조사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7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3시간 20분 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 4시간 57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7).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하루의 교습시간이 9시간 36분이었다(표5). 영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교육과정은 일 4-5시

15) 변수용, 정희진, 안지빈(2018). 영어유치원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급 학교 진학 계획과의 관계. 교육사회학 연구, 28(2), 127-155.
 16) 변수용, 정희진, 정진리(2020). 사립초 졸업이 특목고/자사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32(1), 59-89.

간으로 제한한다. 4-5시간의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전제로 바깥놀이 1시간을 포함해 이루어진다. 오감을 통한 세상 인식, 감정에 대한 뇌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놀이는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핵심적 교수-학습 방법이기 때문이다. 놀이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교재중심, 인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 평균 4시간 57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이러한 영유아기 발달특성과 교수-학습을 고려하기 어렵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박탈당한 유아기의 손상은 피하기 어렵다.

<그림7>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일평균 교습시간 비교(2023.1.1.기준)



[표5]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 상위 5곳 (2018-2022)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원	지역	일평균 수업시간	학원	지역	일평균 수업시간	학원	지역	일평균 수업시간	학원	지역	일평균 수업시간	학원	지역	일평균 수업시간
1위	리틀 한스	강남	11시간 25분	아도리 송파캠 피스	송파	9시간 27분	버틀러	동작	10시간 25분	버틀러	동작	9시간 36분	버틀러	동작	9시간 36분
2위	씨엘 에스	영등포	8시간 3분	리틀한 스	강남	8시간 30분	아도리송 파캠피스	송파	9시간 27분	아도리송 파캠피스	송파	9시간	아도리 송파캠 피스	송파	9시간
3위	리틀 비	서초	8시간	씨엘에 스	영등포	8시간 3분	리틀한스	강남	8시간 30분	리틀 한스	강남	8시간 30분	숲아이 츙크	성동	9시간
4위	밤비 밤	용산	7시간 11분	유티	강남	8시간 3분	비씨컬리 자이츠	서초	7시간 53분	리틀 원스	강남	8시간 6분	라이크 스몰라	강동	8시간 34분
5위	비씨컬리 자이츠	서초	7시간	민족	서문	8시간 3분	문다영 이웃 아이 자이츠 수업	관악	7시간 47분	에스 아이	강동	8시간	리틀원 스	강남	8시간 6분

Ⅲ. 강사가 경험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 손상된 유아기의 구체적 사례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2023년 4월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유아대상 영어학원 근무 경험이 있는 강사 4인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강사가 경험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는 1) 원어민 교사의 비전문성 2) 유아의 발달 지연 3) 분절된 교육과정 4) 검증되지 않은 교재 중심의 교수-학습 5) 기준없는 물리적 환경으로 나타났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한국말소통이 어렵거나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며 유아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및 일상생활지도 실패
- 한국인 교사가 있으나 영어에 우위를 부여하는 등 언어 사용의 권력구조를 통해 원어민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재는 유아에게 열패감을 부여하는 원리로 작동
- 유아기는 익숙한 모국어 사용을 전제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나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은 지연되거나 부정적 방식으로 형성
- 특히 부적응이나 중도이탈 등의 실패경험은 유아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작용 가능성

- 교과나 프로그램, 시간, 교사 등으로 분절된 교육과정은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통합적으로 사고하며 삶의 연결성을 경험하는데 제한적
- 교재 중심의 교수-학습, 인지 교육 중심의 교실환경 등은 활동과 공간 등에서 유아의 참여를 제한하며 교육의 주체로 역할하는 경험을 방해

1. 원어민 교사의 비전문성

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외국인들이 왔어요. 교육적 수준은 높았는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한국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애가 나한테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으니까 반응을 해줄 수가 없는거예요.
- 원어민 중에서 1명만 테솔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원어민 교사들은 아이들 대하는거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대하는 교사도 있었고,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강압적으로 먹이는 교사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토한 아이도 있었고요.
- 너무 황당했던 게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원어민교사)이 와서 저한테 저 뭐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수업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냐 물었더니, 자기 오늘 첫 출근인데 그런 말을 전달받지 못하고 우선 교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왔대요. 일단 자기한테 동화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어떤 동화책을 읽어야 하네요.
- 선생님 어느 나라 출신이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대요 그러면 혹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셨냐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만 구사할 줄 알면 원하는데 취업이 되는 그런 경우였고. 그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3주 뒤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시냐 그랬더니 원장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영어 학원을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다음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다음 선생님은 자기는 여기 온 지 일주일 됐는데 1년을 한국에 여행 겸 이렇게 왔다가 알바식으로 오전만 뛰고 간대요.

②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부족

- 원어민선생님들은 그게 안되니까 일방향적인 그냥 강의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셔요.
-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30분, 40분 이렇게 앉아서 그런 형태로, 못알아듣는 얘기를

30분 동안 앉아서 듣는 것은, 그러니까 애들 눈만 멀뚱멀뚱히 떠서 처음에는 그냥 보는거
죠.

- 한 아이는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대요. 원어민 선생님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하다고.
- 밖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처럼 그렇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재밌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거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열중해서 뭔가 쓴다거나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흘러간다. 흘러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죠.

③ 일상생활지도의 부재

- 화장실 지도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면은 제가 데리고 가요. 여자 변기 하나 남자 변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자 변기도 가림막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고 제가 손을 씻으라고 말을 해야지 애들이 손을 씻지 그냥 애들이 화장실 다녀와도 손을 씻으려고 하지도 않고. 점심 먹기 전에 저는 손을 씻었는데 다른 반은 다 손을 안 씻더라고요. 양치질은 밥 먹은 다음에 있는 친구는 하고요 칫솔이 없는 친구는 안 했었어요. 복도에서는 걸어 다녀야 한다 화장실에 갈 때도 걸어 다녀야 한다. 그런 거 그런 교육을 전혀 안 시켜서 그냥 제가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 담임이라는 개념이 없고. 원어민은 나 그냥 여기 와서 동화책만 읽으면 돼. 그럼 내 임무는 끝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그냥 애들 유튜브로 동요 몇 번 불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각자 그냥 내가 애를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 줘야 돼. 이유 없어요. 나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것만 하면 돼. 이 시간 끝났으면은 나 이제 가면 돼.
- 아이들끼리 싸우면 중재는 제가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냥 제가 하는 거고. 원어민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2. 유아의 발달 지연

① 언어발달지연

- 제가 만 5세반 이제 유치원에서 4년 동안 일했을 때 만 5세 아이들 한국어로 할 때는 두 문장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얘기를 잘하는데 근데 영어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원어민한테 얘기를 못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앵그리!’ 그 친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 보통은 한국어로 하게 되면 ‘선생님 엘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나 때렸는데 이렇게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아파요 우리가 뭐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애가 때렸거든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진짜 단편적으로 이유, 내가 아는 것들로만 그냥 표현하기 때문에 다 꼬집어내지 못하더라고요.

② 사회성발달 지연

- 친구도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해요. 애들같으면 막 이렇게 조잘조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 아이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같이 해보고 놀이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냥 한 공간에만 몰아놓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알아서 영어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③ 긍정정서발달 지연

- 레벨테스트 있었다. 시험형식은 아니었고 조금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런 간단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좀 어려웠던 것 같다.
- 6세나 10세 정도 되면은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이제 저기 받으러 갈 거야. 선생님 저 여기서 한 달만 더 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저쪽 반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④ 부적응 및 중도이탈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 인식

- 한 유아는 아예 여기 유치원에 적응을 못하고 원어민이랑 대화가 안 통하고 그냥 애가 요구하는 걸 말을 해도 ‘원하면 영어로 해’ 이려고 화를 내고 ‘한국어 사용하지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개는 그냥 일반 유치원으로 갔어요.
- 한 유아는 처음왔을 때는 그래도 되게 막 잘 웃고 잘 울고 그런 아이였는데 점점..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영어랑 중국어 진행이 되니까 그냥 점점.. 아이가 점점 표정을 잃어가다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끝에 개가 옮길 때는 틱 장애가 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적응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은 항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많이 피곤해하는지’ 이 정도였고, 그냥 알아서 빼는 정도지. 틱장애가 오고 아이들이 적응

못해도 사실 원장이나 교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어린 연령일수록 거의 대부분 힘들어 하고요. 좀 연령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눈치껏 눈치껏 이제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눈치껏 보고 그래도 처음에 오면은 힘들어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좀 힘들어해요. 대부분은 그냥 처음에는 저 사람이라도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는 형식으로 많이 보죠. 만 5세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영어 몰입 수업하는 거,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이거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잘 견디나 힘들기는 해요.
- 6, 7세는 괜찮았고 5살 친구들이 좀 이제 이해할 수 없고 학습이고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3. 분절된 교육과정

- 하루의 대부분은 시간을 정해놨다. 30분, 40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통 유치원에서는 교실을 나누지는 않는데, 거기엔 교실이 있어서 나눠있었다.
- 교실은 같고 선생님들만 계속 바뀌었는데, 단편적인 것들만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경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대거나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 교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니까 시간의 변화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 2, 3층을 사용을 하는데 그 2, 3층 교실을 계속 로테이션 도는 거예요. 장소도 바뀌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수업마다 선생님이 달라요. 방을 이동하면 선생님이 또 새로 계세요.
-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는 다 분절돼 있어요. 1시간 하고 이거 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에 빠진대거나 뭘 몰입하거나 이런 게 부족했었던 것 같거든요.

4. 검증되지 않은 교재 중심의 교수-학습

- 전문교재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준비한 프린트로 했었고.
- 아이들이 글씨도 못 읽는데 거기 있는 글씨(영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야. 그냥 아이들이 감으로 그냥 스티커 붙이고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점이랑 점이랑 있으니까 연결 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 저는 그냥 봤을 때 보여주기 식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냥 오늘 우리 이만큼 이거 수업했어요. 그냥 이거 보여주는 거. 집에 가져갔을 때 이거 했다고. 근데 그런 거를 가져갔는데도 부모님들이 2세 월 200씩 내면서 프린트물을 달랑 한 장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는 거 가져오는 걸 보고 애를 계속 보낸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5. 기준없는 물리적 환경

① 질 낮은 음식

㉠ 충분하지 않은 양

- 한 번은 갈비찜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양념 국물만 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건더기는 없고 그때 반 아이들이 24명이었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고기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요정도 안 하는 그거를 잘라서 어쨌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때 제일 많이 화가 났어.
- 아이들이 돈가스 이런 게 나오면 아이들이 더 먹고 싶잖아. 그런데 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 너무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 점심은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해서 먹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콩나물 국이 나왔었는데 두부가 3개 들어 있어요. 아이 10명한테 배식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누구는 두부를 주고 누구는 두부를 안 뜨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좀 많이 난감했었고 미역국에서는 소고기가 근데 5개 있어서 제가 정말 소고기를 다시 잘게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10명한테 나눠줘야 하기 위해서.

㉡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리

- 이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짜거나 아니면 아예 간이 안 돼 있거나 그러기도 했었고, 오후 간식 같은 경우에는 절편이나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는 떡 같은 걸 이렇게 구워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걸로 어른인 저도 씹기 힘들데 아이들은 어떻게 씹지 할 정도로 너무 딱딱하기도 했었고

㉢ 영양이 고려되지 않은 식단

- 생각해 보면 저희 학원도 영양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구성하셔서 원장님 부원장님께 얘기하면은 ‘아 이거 맛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갖던 것 같아요. 따로 체계적으로 영양사 칼로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냥 준비를 해줬었던.

- 오전에 또 간식 타임이 있는데 월요일에 꿀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는 다 꿀이에요. 쟁반에 주는 게 아니라 위생 봉투에 열 개가 딱 와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손에 덜어서 먹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는 다 초코파이에요. 오전 간식이.
- 식단표도 안나가요.

②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실 환경

- 교실환경도 마찬가지로 책상 놓고 의자 앉고 그 안에는 놀잇감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학원 교습소처럼 운영되는 그런 곳이어서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었나 보다 생각해요. 할 게 없어요. 진짜 정말 뭐가 아이들끼리도 뭐가 장난감도 있고 가지고 말도 걸면서 그런게 없으니까 아이들도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 깔끔하고 되게 좋았지만 이게 과연 만 3 4 5세 아이들에게 적합한가라고 봤을 때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어요. 뭐가 낙서도 좀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어라는 것들만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만 있었던 거라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③ 놀이터의 부재

- 딱 말 그대로 학원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신에 밑에 강당은 되게 크게 있었는데 강당에 그냥 아이들이 스펀지 블록처럼 돼 있는 그런 놀잇감들이나 아니면 간이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놀잇감들이 있거나 하고 이제 뒷마당에 잔디가 광장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잔디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치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정식으로 놀이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강당에서 그냥 애들아 오늘 공 가지고 놀 거야만 해도 너무나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제 거기 강당이라는 곳이 바닥은 마른바닥이고 창문을 열 수 없게끔 다 잠가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암막커튼이 돼 있는데 공이나 블록이나 아이들이 흘러후프나 놀이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제공돼 있지 않고 거기서 한 40분 정도 시간을 때워야 돼요 등원해서 한 반은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 번씩 거기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뛰어요. 애들이 자기 놀이를 한다든지 뛰든지 아니면 누워 있던지 그렇게 하고.
- 우선은 놀이 시설은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깥 놀이도도 없고 실내 놀이터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정한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있지 않고. 강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공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햇빛도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오게끔 암막커튼도 고정을 시켜놔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 그냥 계속 뛰어요.

④ 유아 발달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화장실 배치

-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식) 유치원 교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영유)는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교실을 나가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되는 거가 있었어요.

IV.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부 대책 - 형식적 대처

-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부 대책은 201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국한
- 지도점검은 교습비 제한, 시설규모점검, 강사정보게시 등의 물리적 항목에서 운영시간, 교육과정, 강사현황 등의 항목을 포함
- 그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교습비 평균은 4년제 대학 등록금 2배를 상회, 운영시간, 교육과정 등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2018년 유치원 방과후 ‘놀이중심허용’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증가추세를 막지 못했으며, 편법적 운영 및 발달에 부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대한 감리 감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오히려 교육부가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허용함으로써 영어 중심 인지교육의 조기화, 경쟁교육 심화에 일조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교육불평등, 계급 재생산, 인지교육 및 경쟁교육의 출발점**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유아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20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됐고, 2013년에는 ‘영어유치원’이란 표현 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 또는 ‘영어학원 유치부’라고 표현할 것을 교육부가 언론사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이나 감시는 미흡했다. 2017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고액교습비는 당시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측근 자녀의 교육

비리 등과 연동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자 교육부는 2017년 6월 ‘유치원 행세’ 를 한 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했고, 6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도 ‘영어유치원’ 명칭사용을 위반한 유아 영어학원 59개를 추가로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김주영, 2017)¹⁷⁾. 2018년 1월,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방과후 과정 내 유아 영어교육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한 달 뒤, 유아대상영어학원을 비롯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으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증가해 500개가 넘으며 부실한 정부 관리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중관, 2019)¹⁸⁾, 이후 코로나 시기 동안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부 관리는 없었다. 코로나가 해지된 이후, 첫 대응은 올 해 2월 카드뉴스를 통해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 임을 강조하는 명칭에 대한 것이었다. 3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는 장상운 교육부 차관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을 논의했고, 7월 31일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표6〉 유아대상 영어학원 정부대책¹⁹⁾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교육부 대응	
2012.3.21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경우, 해당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²⁰⁾
2013.3.13	‘영어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학원’이므로 ‘유아대상 영어학원’, 또는 ‘영어학원 유치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보도자료 배포 ¹⁴⁾
2017.6.29	‘유치원 행세’ 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²¹⁾
2017.8.28	교육부-통계청은 유아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영어를 포함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 ²²⁾

17) 김주영(2017.9.25.). 솜방망이 처벌에... 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925004920?OutUrl=naver> 에서 2023.8.9. 발췌

18) 박중관(2019.8.15.). 500개 넘는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1567791> 에서 2023.8.9. 발췌

19) 교육부 사이트 ‘교육부 소식’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검색하여 연도별 정리함.

20) 교육부(2013.3.13.). [참고자료]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관련 협조 요청.

2017.12.14	유치원 원아 모집 시기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특별 점검 실시 (2017.12.15.~2018.1.15.) ²³⁾
2017.12.15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모니터링을 통해 59개 학원 적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고 ²⁴⁾
2018.1.16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피해를 우선 해소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 ²⁵⁾
2018.2.1	20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 점검 실시 예고 ²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합동점검에서 21개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점검하여 법적 위반학원 20개소 학원을 적발하여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
2018.10.4	교육부, 학부모 설문, 워크숍 개최 등 학부모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²⁷⁾
2019.8.16	500개 넘는 영어유치원의 증가세로 정부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엄정대처를 예고 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비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 책정시 제한,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 요건 충족을 통한 학원 개설, 강사학력·전공·소지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 의무 게시 등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
2023.2.16	카드뉴스 제작을 통해 영어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임을 강조 ²⁹⁾
2023.3.24	장상윤 교육부차관,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 등의 교육 분야 현안 논의를 위한 시도부교육감 회의 주재 ³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정원(현원), 운영시간, 교습과정, 교습비 및 기타경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채용서류 등),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전반 조사
2023.7.31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 대상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중점 점검 ³¹⁾

21) 교육부(2017.6.29.). 중간보도자료(유치원 행세 어학원 등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22) 교육부(2017.8.28.). 중간보도자료(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3) 교육부(2017.12.14.). 영어유치원의 탈을 쓴 '유아 영어학원' 단속합니다!

24) 교육부(2017.12.15.). 석간보도자료(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특별점검).

V. 손상된 아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의 악순환

-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4차산업 시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문화, 교육환경은 여전히 근대적
-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서 교육은 더욱 강화되고 그럴수록 교육불평등은 심화
-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영어’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독특한 위상으로 인해 상징성을 지니며 다른 사교육과 차별화
- 영어는 특목고·대입 등 입시의 특전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취업·승진 등에서도 필수 역량으로 제도화되어 사회적 보상 시스템으로 기능. 이러한 문화는 영어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도 동일한 맥락에서 여타 사교육과는 달리 그 자체가 엘리트 코스로 인식
-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시작하여 사립초→국제중→특목고 및 자사고→명문대로 이어지는 특권층의 카르텔이란 프레임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는 앞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음
- 소수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이러한 구조는 인터넷 소통 플랫폼의 확장으로 대중의 희망과 판타지 서사로도 작용. 인지중심의 경쟁적 교육 환경은 일반 대중의 계층 이동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보편화되며 확장
- 인지중심의 경쟁적 교육 환경은 더욱 조기화되고, 조기 인지교육은 보편화되며 영유아의 전인발달은 더욱 소원
- 유·아동 및 청소년기는 인지교육 및 경쟁교육에 매몰되며 손상 / 청년기는 취업 경쟁 및 전반적 노동환경 악화로 인한 피로와 소외 / 중장년기는 자녀양육에 대한 고단함과 피로,
- 현 구조에서는 손상된 아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의 악순환이 반복.

25) 교육부(2018.1.16.). 11시 보도자료(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26) 교육부(2018.2.1.). 조간 보도자료(‘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

27) 교육부(2018.10.4.). 즉시보도자료(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28) 교육부(2018.8.16.). [설명자료]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9) 교육부(2023.2.16.). ‘유아대상 영어학원’ 내 이름을 찾아주세요!

30) 교육부(2023.3.24.). 장상윤 차관, 제3차 시도부교육감 회의 주제

31) 교육부(2023.7.31.). [보도자료]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 저출생은 이 악순환의 관점에서 사유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으로 유지될 수 없는 4차 산업 시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문명으로 적응해야 할 과제로 고민하려는 관점이 필요.
- 혁명적 사회 변화 시기에는 기본소득 등의 혁명적이고 전복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 현재의 교육 구조 속에서는 요원.

Ⅵ. 제안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교육불평등, 계급 재생산, 저출생 등 거시적 관점에서도 사유되고 논의되어야
- 그런 의미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특히 유아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유보통합의 국면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적 관점에서 더욱 엄격하고 엄중하게 관리될 필요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그 자체가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과도한 몰입 상황에서는 더더욱 영유아 인권 사각지대로 작용
- 현재의 형식적 정부 대응으로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미시적 관점에서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위상을 인지하고, 그 상징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식의 정책 입안이 필요
 -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일상을 보내는 영유아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행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필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추진³²⁾**
 -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비롯한 조기 인지중심의 사교육은 영유아의 놀권리와 건강권, 발달권에 대한 침해,
 - 영유아의 조기 사교육 및 과잉학습은 UN 아동권리협약(24조 1항과 3항, 27조, 31조), UN 사회권 규약(12조 1항, 13조 1항)의 국제 조약에도 위배
 - 국내의 영유아 인권 관련 법령은 교육기본법(12조, 13조), 아동복지법시해에령(10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9조 1항, 16조 1항, 17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0조, 11조), 유아교육법(21조 2항), 영유아보육법(3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해 과잉학습의 현상에 직접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 뿐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유아의 놀권리 및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 부여, 과잉교육방지를 위해 유아를 교육,보육,돌봄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및 연수 제공,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의 과잉교육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

32) 홍민정(20).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4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영유아 인권보장 4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pp. 1-5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제2세션 제2발제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I. 들어가며

II. 영유아 시기 사교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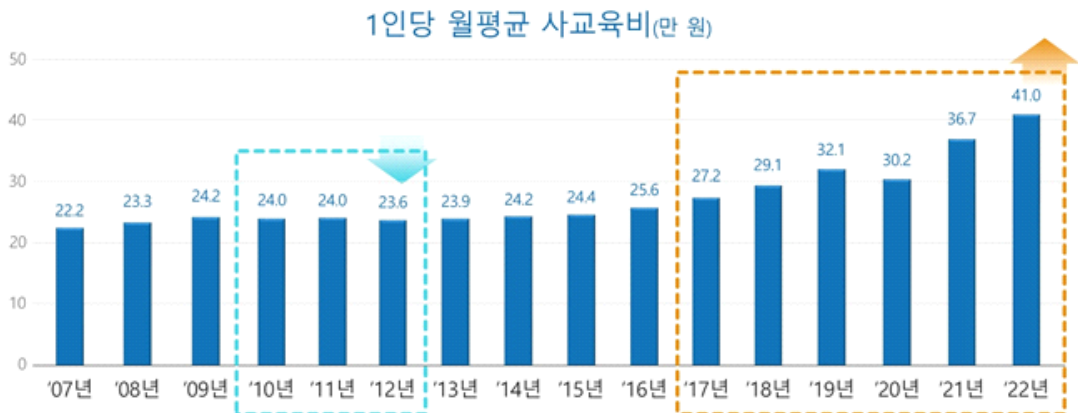
III. 영유아사교육의 문제점

IV. 제언

V.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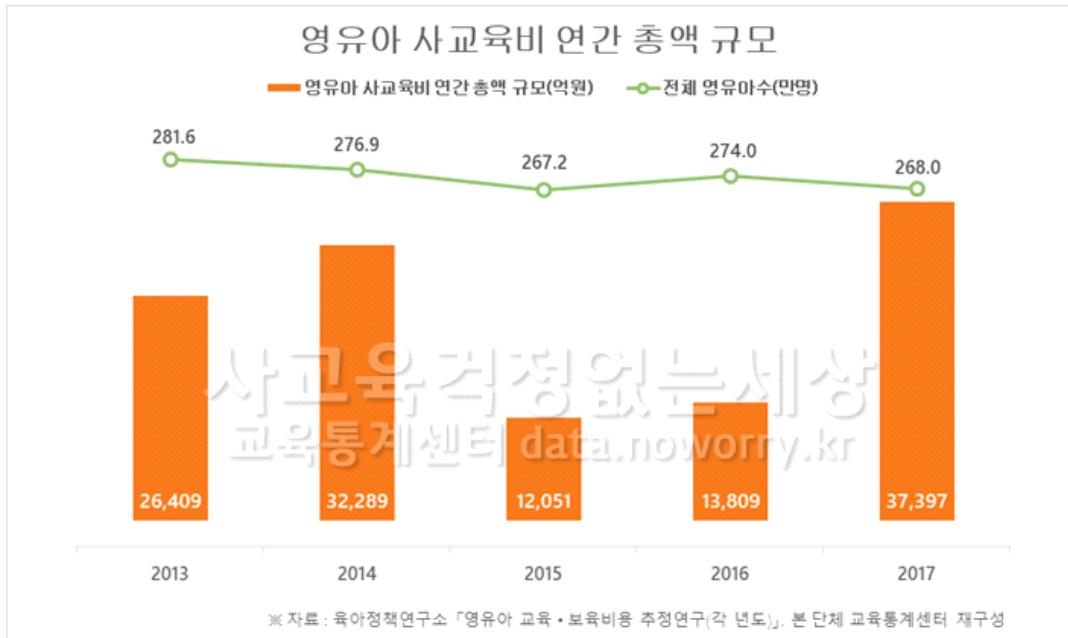
I. 들어가며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2017~202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가 급증한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비단 초중고등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다. 2017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6천원, 연간 총액은 3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7배가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유아 사교육비가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급증하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부가 2017년 시험조사 이후 2018년부터 본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2017년 부실한 시험조사 실시 이후 시험조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본조사 실시 대책 등 어떤 발표도 전무했다. 사교육 시작 연령은 날로 초저연령화 되고, 영유아 사교육 비용은 고비용화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데도 유아정책연구소 등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대략 추측만 할 뿐 영유아가 통합된 영유아 사교육비 등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유치원 유아들은 교육부, 어린이집 영아들은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탓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첫째 초등 입학에 대비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사교육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발벗고 나섰다라는 점, 둘째 그동안 계속 실시하고자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던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점, 셋째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정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사회가 나서 경쟁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영유아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살피고 과도한 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책을 고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 실태를 밝히기 위해 초등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만5세 시기의 사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책들이 필요한지 밝혀본다.

II. 영유아 시기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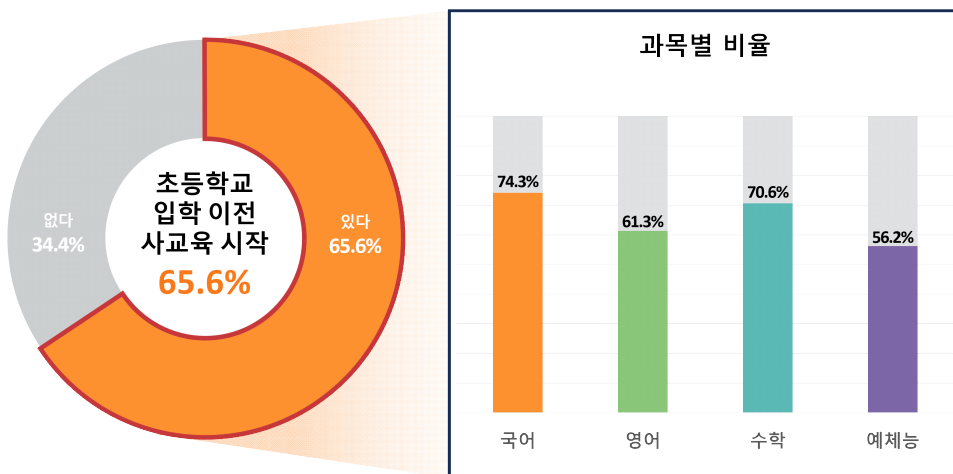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초등1학년 학부모 11,000명에게 자녀의 만5세 시기 사교육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1.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리서치 중앙 분석의뢰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N=11000
조사기간	2023.5.16.~29 (14일간)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92%

2. 사교육을 언제 시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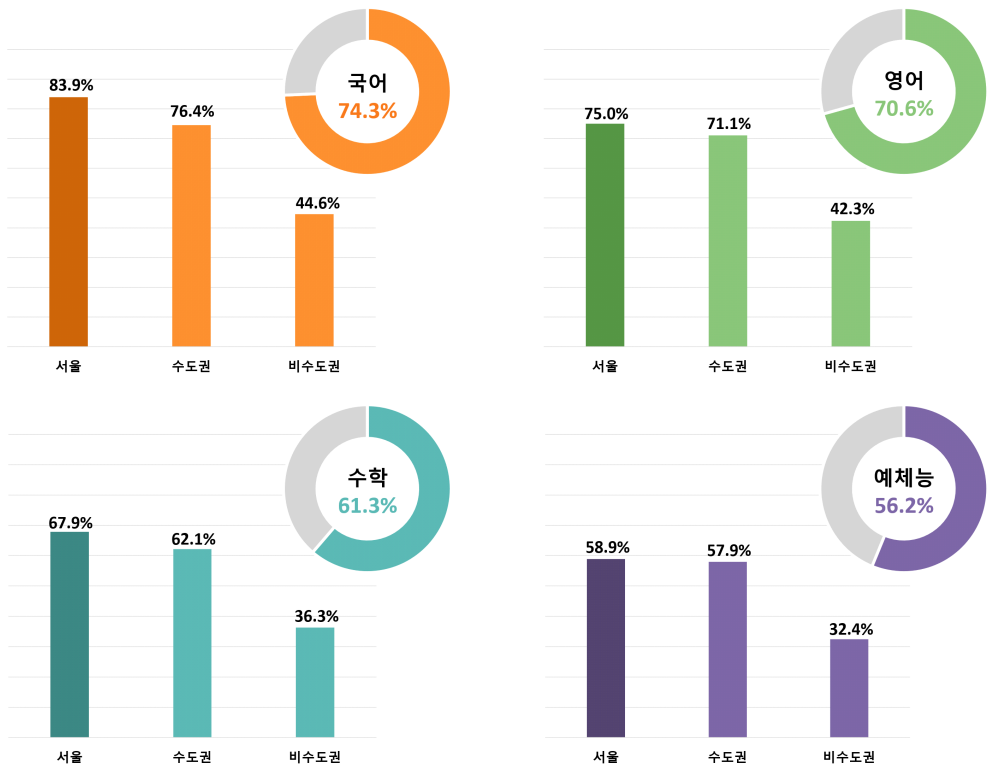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전국 초등1학년 학부모 11,000명에게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물었더니, ‘초등학교 입학 이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 등으로 나타나, 10명 중 6~7명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한글과 수는 기본이고, 영어와 예체능까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교육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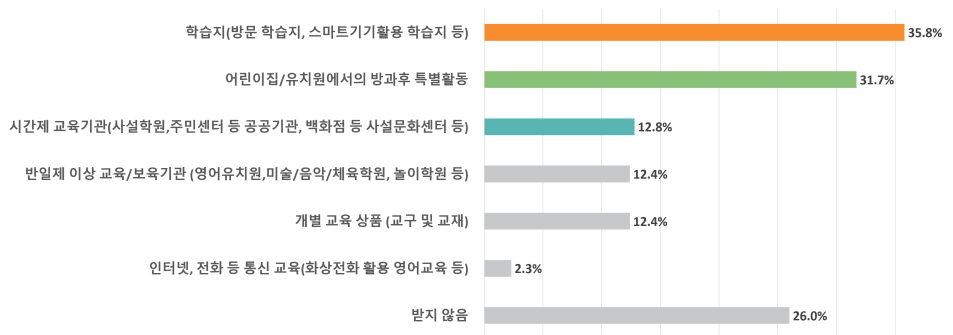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그 중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별로 비교분석해 보면, 서울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 학생이 이미 국어(한글) 선행학습을 받은 채로 입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이며, 영어, 수학, 예체능의 경우도 비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수도권 학생의 사교육 선행학습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하는가?

작년에 자녀가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관련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나요?

(3개 이하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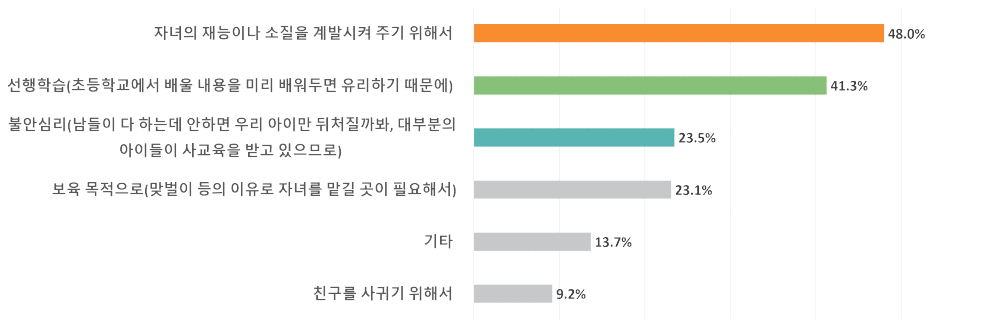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동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만 5세에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물었더니,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전체 31.7%, 국어 31.3%, 영어 42.6%, 수학 25.1%로 나타나, ‘학습지’라는 응답과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유아들이 사교육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쉬운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도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이유로 특별활동 증설의 요구를 받고 있으며, 특별활동없이 아동의 흥미와 놀이 중심으로 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오히려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영어 및 인지 중심 교과목 방과후 과정 운영 재정 지원 확대 정책 발표는 정부가 나서서 조기교육 열풍에 부채질을 해주는 꼴이며, 유아 단계에서 취학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동되어 유아들의 사교육 진입시점을 더 낮추는데 일조하는 격이 될 것이다.

4.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개 이하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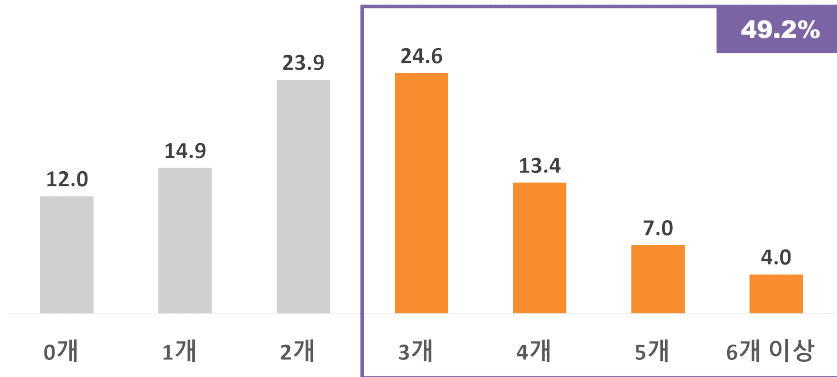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는 소질개발 외에 선행학습 41.4%, 불안심리 23.5%로 나타나, 사교육이 학부모와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건강한 이유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경쟁교육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기 때문에 방어적인 이유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시경쟁이 유아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지표이다.

5. 사교육을 얼마나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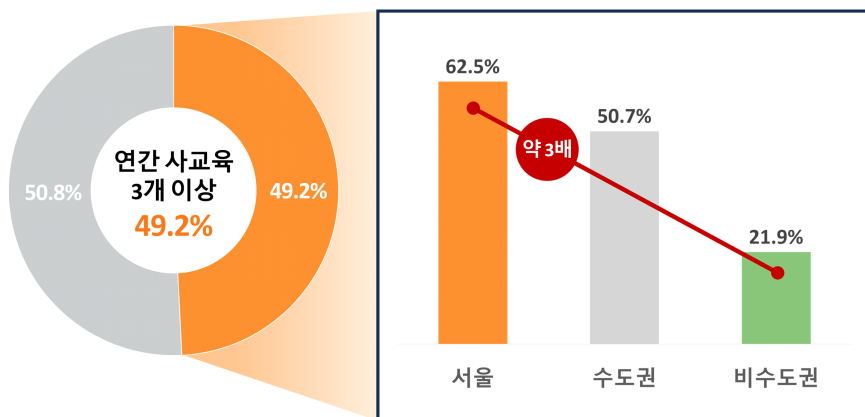
만5세 자녀가 다닌 사교육의 연간 총 과목 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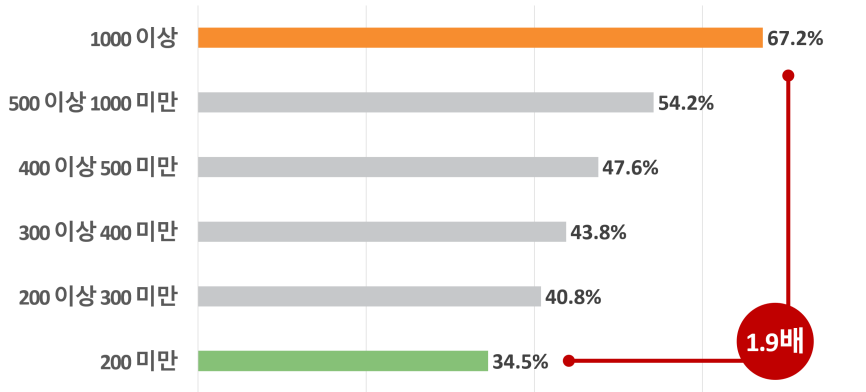
만5세 자녀가 다닌 사교육의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해 만5세 유아의 절반이 무려 3개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되었다.

연간 총 3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았다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연간 총 3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았다 소득 구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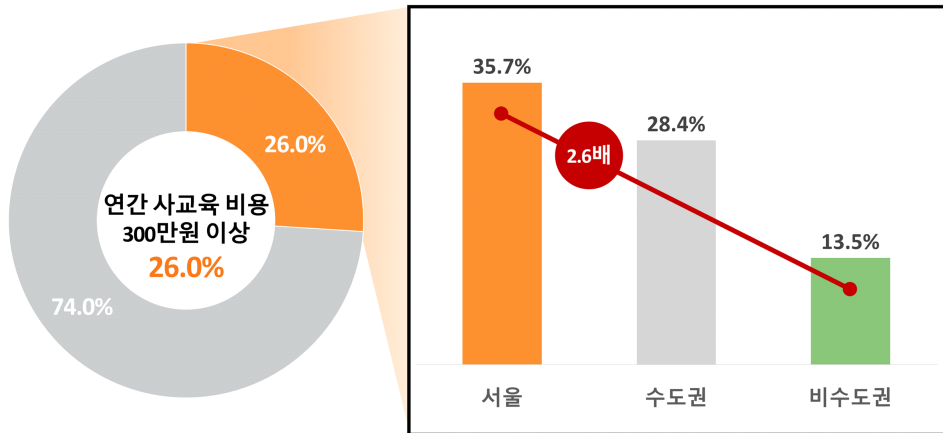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이를 수도권-비수도권별, 소득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과목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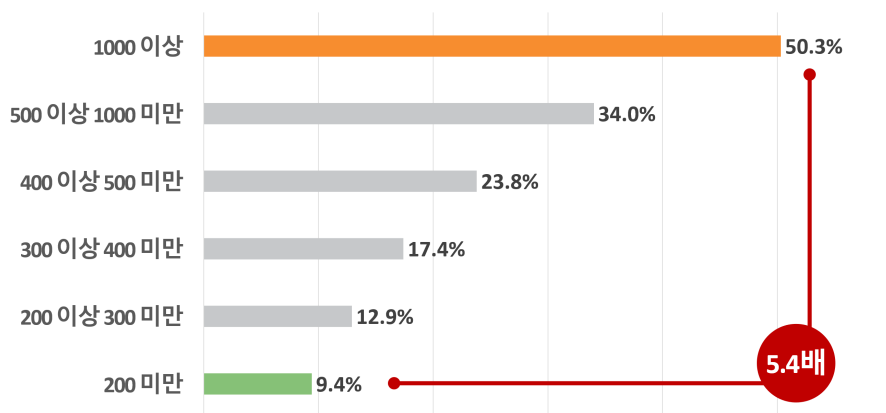
6.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가?

지출한 연간 사교육 비용이 300만원 이상이다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지출한 연간 사교육 비용이 300만원 이상이다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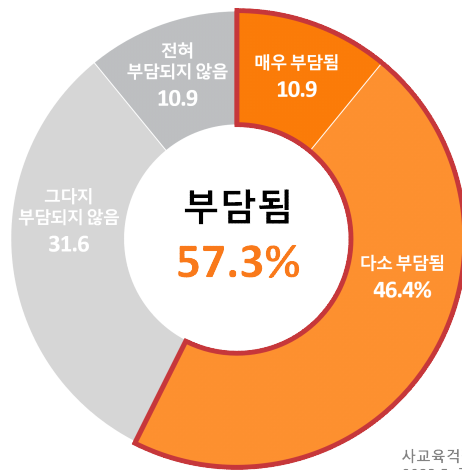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또한 만5세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0%인데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비율이 2.6배나 높아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를 월평균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평균소득 1,000만원 이상인 가정은 연간 300만원 이상 쓴다는 비율이 50.3%로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 9.4%보다 약 5.4배 높다. 사교육비로 600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가정도 9.7%나 된다. 이렇듯 수도권-비수도권 및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 및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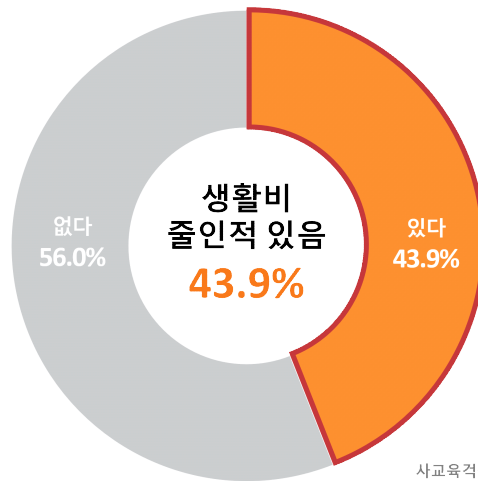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 비용이 부담이 되었나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물었더니,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영유아단계에서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부분이 있었나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
2023.5. 전국 초1 학부모 11,000명

그리고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4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

UN 아동권리협약은 발달권, 놀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자연환경과 어울릴 권리,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 놀이 여가 휴식권 및 수면권,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를 적시하였다. 국내외 조약과 법령들이 영유아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학습과 교육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아동의 발달권, 건강권, 교육권, 놀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1. 놀권리의 침해

유엔은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놀이권(theright of play) 또는 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당사국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둘째,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이들의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약에서는 아동의 놀이가 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핵심적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와 성인은 아동의 권리로서 놀이를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습시간은 놀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에 영유아는 아예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대부분 학습시간을 채워져 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심각하게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수준의 교습 시간은 아이들의 놀권리 침해 및 뒤에서 다룰 발달권에 있어 치명적이다.

과도한 학습시간은 놀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김은영 외(2016) 평일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은 2세아의 경우 평균 69.8분, 5세아의 경우 평균 63.9분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권장 운동 시간은 5~17세 아동의 경우 하루 최소 60분 이상이며, 호주 보건부는 영아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3~5세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해야 하며, 영유아 모두 1회에 1시간 이상 앉아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³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별도로 바깥놀이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체로 2시간 내외의 실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호주 보건부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교습시간이 쉬는 시간 없이 1시간이상 지속되는 영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바깥놀이 시간이 현격히 줄어든 만큼 아동의 발달과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³⁵⁾

2. 건강권 및 발달권 침해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

33) 김명순,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018.

34) 김은영,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육아정책연구소, 2016.

35) 아주대 이봉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아동의 일상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어른과 놀이 하기는 16.2%였는데 코로나 이후 13.6%로 줄었다. 반면에 유튜브 등 영상 시청은 18%에서 24.2%로 확연히 늘었다.

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고 발달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도한 인지 교육으로 인해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다.

가. 관련 연구

만 3-6세의 유아기는 종합적 사고와 인간성, 도덕성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성과 도덕성, 집중력, 동기 부여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만 6-12세에 발달하는 측두엽의 기능인 문자 교육, 수학 교육 등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지나친 사교육과 스트레스·문제행동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홍은자 외(2001)³⁶와 박영양 외(2004)³⁷의 연구는 사교육 수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권정운(2007)³⁸, 백혜정 외(2005)³⁹, 홍현주 외(2011)⁴⁰ 등은 사교육 시간이나 가짓수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특히 홍현주 외(2011)⁴¹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5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루 4시간 이하의 사교육을 받은 아이 중 10% 정도에서 우울 증상을 보인 반면, 4시간이 넘는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30%를 웃돌았다. 또한 송정은 외(2010)는 사교육을 많이 받는 남아의 경우 외현화(공격, 과잉 행동, 불복종, 짜증 및 비행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 문제의 빈도가 높아지며 이는 성인기에서 정신과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한정한 연구 결과도 있다. 김형재(2011)⁴²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

36) 홍은자,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01

37) 박영양·이성희,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제4권 제2호(2004), 175-196.

38) 권정운.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2007), 1-19.

39) 백혜정·김현신·우남희.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3권(2005), 23-43.

40) Hong HJ, Kim YS, Jon DI, Soek JH, Hong NR, HarkavyFriedman JM, et al. Mental health and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Korean first graders. Proceedings of 56th Annual meeting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2009 Oct 27-Nov 1; Honolulu, USA.

41) 앞의 홍현주 외 보고서

나는 유아와 시간제 영어학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듣는 5, 7세 유아 총 100명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5, 7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가 더 높았으며, 비난 공격 상황에 처함, 불안 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등 모든 영역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아가 높았지만, 특히 좌절감 경험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문제 행동 역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아가 높았으며, 특히 내재화 문제(불안, 우울 등 자기내적인 문제)에 있어 두드러졌다.⁴³⁾

물론 영유아 사교육이 학습요령 터득이나 자신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며, 영유아 사교육의 정서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유아교육, 소아정신과 전문가들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영유아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설문조사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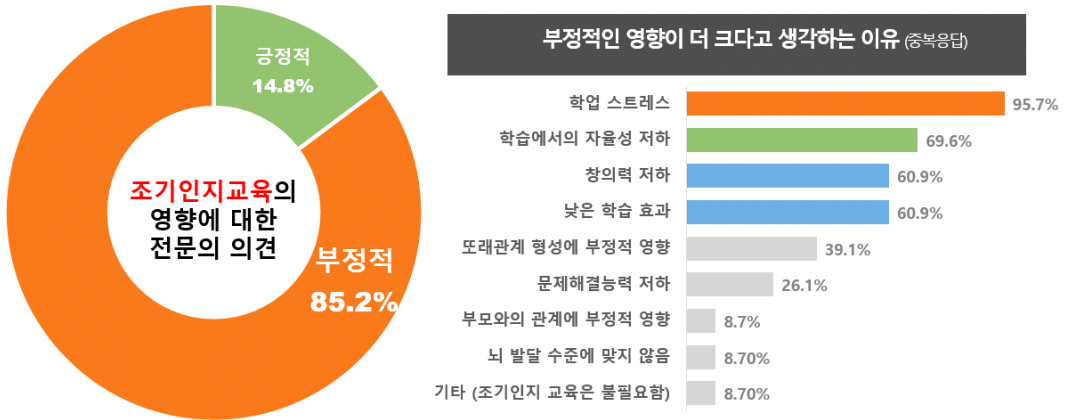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의 대부분(85.2%)은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95.7%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 69.6%, ‘낮은학습효과’, ‘창의력 저하’가 각각 60.9%로 그 뒤를 이었다.

42) 김형재,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1

43) 앞의 김형재 보고서

44) 양신영, 소아정신과 전문의 85.2%, 조기인지교육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영유아 인권법’ 제정 시 급해..., 보도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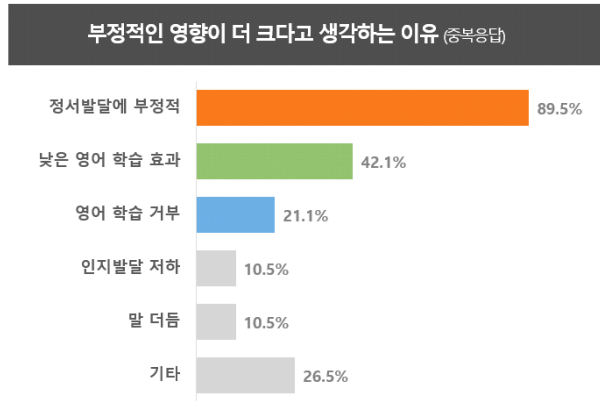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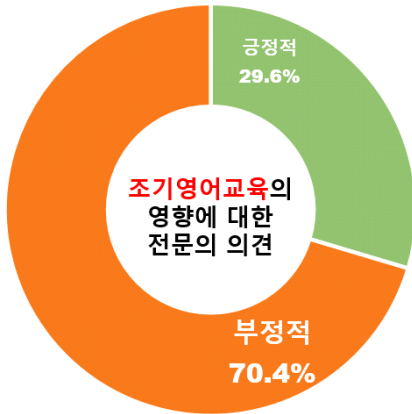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의 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20211)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경력2년 이상 전문의 대상 조사

특히 조기 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70.4%가 부정적이며 그 이유로는 정서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9.5%로 가장 많았다. 전문의들이 조기영어교육이 아동 발달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인지교육의 유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는 ‘과도한 학습시간(70.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레벨테스트 및 지필평가(33.3%)’, ‘많은 사교육 가짓수(33.3%)’, ‘학습목적의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시청(29.6%)’ 하는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의 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의원실(2020.11)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경력2년 이상 전문의 대상 조사

조기인지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다. 기타 ‘집중력 부족 및 산만함, 낮은 자신감 등의 정서문제, 복통두통’ 등의 신체증상도 많이 호소한다고 응답했다. 조기인지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의는 “영유아기에는 인지 교육이 아닌 자발적 놀이와 자연이나 예술적·감성적 환경에 노출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인지 위주의 교육이 영유아기에 발달되어야 할 근본 감성과 사회성 성장에 심한 방해가 되고, 뇌의 자연적 발달을 왜곡시키며, 임상적으로는 자기중심적·자폐적 성향을 강화시킵니다.”, “조기 교육이 기본적으로 아동중심이 아닌 교육자 중심, 혹은 부모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아동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실제 이러한 사교육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과도한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했다.

IV. 제언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국가 책임 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⁴⁵⁾

가장 확실한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학습을 실효성있게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을 개정⁴⁶⁾하여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 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및 교사에게 적기 교육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특별활동이나 특성화가 아닌 놀이중심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신설될 통합 법률에서도 영유아인권보장 및 과잉교육 방지를 위한 조항이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

가. 주요 내용

1) 영유아 놀권리 보장을 위한 책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놀권리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한다. 이 주체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실현하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가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영유아를 직접 교육보육하는 1차 대상자라는 점에서 규제의 수범자로 하여 기준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책무 조항을 두어 부모와 주양육자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 의무를 설시하도록 한다.

45) 이하 2021. 4.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인권보장 4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발제문 중 인용 및 참조

46) 구체적 개정안은 부록 참조

2) 과잉교육방지를 위한 연구 및 연수

다음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및 유아교육진흥원이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영유아에게 과잉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부작용 및 세부적인 기준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 교습자 등에게 영유아기의 바람직한 학습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및 사교육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의무 연수도 실시하여 과잉교육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잉교육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이 과도한 인지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⁴⁷⁾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였다. 과잉교육의 시간상 최대 기준을 40분으로 설정하였다. 취학 전 아동에게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아예 배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하루 최대 30분을 권장하는 국외 연구 기준⁴⁸⁾,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권장학습시간을 설정하지 않는 선행 연구⁴⁹⁾ 인지학습을 최대한 배제한 누리과정의 취지와 내용, 초등학교 1학년의 1교시 수업시간이 40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하루 30분을 권장하고 10분 가량은 여유를 두어 40분을 최대 허용 단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지과목 프로그램과 영유아대상 사교육기관의 인지과목 교습 시간이 영유아 1인당 하루 4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벌점 등의 행정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대효과

1) 의식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전반적인 사회분위

47) 본고 IV. 1.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또한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48) Cooper, Zentall 등의 국외학자들은 영유아가 학습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 혹은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학습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앞의 김은영 외 보고서)

49) 정익중 외, “아동권리지표 개발연구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기와 문화가 변화하였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등의 사회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용인되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부패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들이 만연하여 있었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이러한 현상들이 단시간에 개선되었다. 제정 직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기존의 관습과 문화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공적인 일 등에 청탁과 금전 혹은 재화가 오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혔다. 김영란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인권4법은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유아의 인권과 직결되는 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지와 위반시 처벌조항 뿐만 아니라 과잉교육방지센터의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한다는 비율이 85.2%를 차지했다.⁵⁰⁾ 기관이나 원장의 교육방침보다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불안으로 인한 학습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진정으로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적 행위가 무엇인지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부모와 사교육기관의 의식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사교육 경감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유아의 인권과 직결되는 행위라는 의식이 자리잡히게 된다면 생후 1개월 영유아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병리적 경쟁 현상도 완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영유아 사교육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우리아가 뒤쳐질 수 있다는 등의 막연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⁵¹⁾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어 다같이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경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이러한 불안심리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영유아 사교육을 경감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1)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의원실이 2023. 7. 10.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로 소질계발 외에 선행학습 41.4%, 불안심리 23.5%로 나타나, 경쟁교육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기 때문에 방어적인 이유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인권보장

법안의 강제적 조치로 인한 본질적인 효과는 바로 영유아의 인권 보장에 있다. “사교육기관이 영유아 1인당 하루에 최대 40분이상의 인지중심과목 교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과도 인지 교육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위반할 경우의 적합한 제재 조치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과도한 인지 학습으로 인해 위협받았던 발달권과 건강권, 놀 권리, 참여권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금지조항 뿐만 아니라 과잉 교육방지센터의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의 양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부모, 사교육기관 등에 교육하는 체계가 마련되며 연구 교육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유아대상영어학원의 관리 감독 강화

4법 개정 이전에라도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크게 원어민 교사의 질 관리 문제, 고비용, 장시간 고난이도의 학습, 명칭의 문제, 교습과정의 문제, 유치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영유아를 교습하고 돌보는 기관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⁵²⁾는 ‘실용 외국어’ 로 교습과목 등록 후 음악·미술·체육, 한글수업 및 급식시간 운영 한 사례를 편법 운용 사례로 제시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사례 : 실용외국어)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 유도하고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이 걱정없는 세상을 비롯한 시민 및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건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개정을 밝히고 유아대상영어학원을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다. 영유아 관계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영유아들이다. 유아대상영어학원들을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하여 고비용 및 장시간 학습 노동에 유아들이 오랜 시간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는 구체화된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52) 2023. 6. 26.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이루어지길 바란다.

3. 국가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및 발표

매년 2월 통계청은 국가차원의 사교육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의 경향성 및 소득구간별·학교급별·과목별 사교육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통계가 발표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 영유아는 제외되었다. 2017년 8월, 교육부와 통계청은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 2018년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자세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뿐 그 이후 본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영유아사교육비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계청의 발표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써 출산절벽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유아사교육비의 실제적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초중고 사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사교육비를 같은 수준과 범위로 조사하여 발표하여 우리 나라 사교육 지출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별활동 및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교육업체에서 들어와 부모들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국가는 영유아사교육비 통계조사시 특별활동 및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실제적 데이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구체적 실태를 통해 그 적절한 대안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영유아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 또한 유아의 놀이가 언어, 인지, 정서 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매개이고 가장 적합한 학습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바깥놀이가 중요하다. 유아기의 바깥놀이는 다양한 감각과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뇌발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고 최적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벗어나 아이들의 놀이 선택권 확대와 바깥 놀이를 확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특히 바깥놀이 확보를 포함한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안전하고 질 높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몇 년전 어린이집에서 바깥놀이를 갔다가 친구와 부딪혀 6세 유아가 사망한 사건은 전국민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아동 학부모는 교사대 아동비율감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무려 20만명이상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⁵³⁾ 바깥놀이 등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면 이를 위한 교사대 아동 비율 감축은 우선적·의무적으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이다.

5. 초1 교육과정의 개선

정부는 6월(교육과정) 초등 입학에 대비한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확대하겠다고 밝혔다.⁵⁴⁾ 이음학기는 유아·학부모 대상 놀이중심 언어교육, 초1 통합교과 연계 등 초등 적응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선행교육 및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환경을 조장할까 우려스럽다. 특히 초등 입학전 한글 선행은 필수라는 인식으로 인해 한글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⁵⁵⁾에서 언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글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유아들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상황에서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달의 격차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유아들을 초등 대비 선행교육으로 내몰기보다는 유아 단계에 적합한 회복 교육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하여 유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초등 1학년에 진학했을 때 발달 격차 및 수준을 고려하여 각 유아별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난이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

53) 2020.12.14. 한겨레, 친구와 부딪혀 숨진 6세 엄마의 청원...20만명 동의

54) 2023. 6. 26.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55) 영유아의 국어 사교육은 비율은 영어 수학 예체능 등의 과목들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은 83.9% 학부모들이 국어 사교육에 참여했다 응답했다. 2023. 7.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6. 코로나 지원 대책 수립

둘째, 코로나 팬데믹 3년으로 인해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를 빨리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누리 과정 운영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발달 검사 및 발달 치료 지원, 학부모 상담 지원 및 가정에서의 대처를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발달 문제의 심각성을 부모들에게 알리고 가계 소득 및 취약 아동과 장애아동 등에 따른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 부모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유아기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며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서울시는 2022년 조사를 통해 발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초기 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을 개별 지자체에 맡길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7. 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혁

공교육 개혁의 근본 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월 26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이후 모든 언론들은 일제히 모든 단계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본 대책은 상대평가 입시 경쟁을 개혁하는 것임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입시는 미세조정만 할 것”이라는 발언 이후 전혀 변화된 입장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상위 입시 제도의 개혁 없이 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 경쟁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부가 밝혔듯이 매년 유아 사교육은 저연령화,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 입시 경쟁 교육에 발목 잡힌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V. 나가며

2019년 9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 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에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비판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영유아의 과도한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교육이 영유아의 건강권, 발달권, 놀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한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오늘 본고에서 제시한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 외 여러 대안들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잉교육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고 과잉교육이 예방되어 이로 인해 영유아들이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겪는다는 뉴스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진정한 국가 책임 교육 강화, 진정한 영유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 부록 -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법률 개정 시안

[표 1] 유아교육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3조의2(유아 놀 권리 보장)</p> <p>① 유아는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과잉교육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분석·교육하며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보호자는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학습 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p> <p>④ 유아를 교육하는 자는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3조의3(유아과잉교육예방)①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 및 제2조 제6호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때 유아 1인당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이 과목들과 타과목을 결합한 과목을 하루 40분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된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놀 권리 보장과 과잉교육예방을 위하여 유치원의 교원, 방과후 과정의 강사,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7조(과잉교육예방 및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및 유아교육진흥원은 영유아 과잉교육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기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의 난이도와 내용에 대한 연구 2. 유아 과잉교육의 기준에 대한 연구 3. 유아 과잉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 4. 학부모·유치원 교사·사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연구

	<p>5. 유아 과잉교육 개선 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6. 유아 교재교구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 7.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 시간과 형태 등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유아놀 권리 보장 및 영유아 과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업무</p>
<p>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5. 2. 3., 2015. 3. 27., 2016. 5. 29., 2020. 5. 26.></p>	<p>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① ----- -----,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과잉교육예방 및 그밖의 사항에 ----- -----</p>

[표 2] 학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 방문하여 학습자와 교구 등을 매개로 교습하는 법인 및 -----</p>
<p>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이하 영유아)에게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2조의2(유아과잉교육예방)제2조에 따른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는 만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과목(다른 과목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같다)의 교육 2. 36개월 이상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과목(다른 과목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같다)의 하루 40분 이상 교육
<p>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①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p>	<p>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①(현행과 같음)</p>

<p>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교육감은 영유아를 교습하는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놀권리 보장과 과잉교육예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제17조(행정처분) ① (현행과 동일)</p> <p>-----</p> <p>-----</p> <p>-----</p> <p>-----</p> <p>-----</p> <p>6의2. 영유아에게 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습한 경우</p>

[표 3] 평생교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만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p> <p>1.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과목(다른 과목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같다)의 교육</p> <p>2. 36개월 이상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과목(다른 과목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같다)의 하루 40분 이상 교육</p>
<p>제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4. (현행과 동일)</p> <p>4의2.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p> <p>② (현행과 동일)</p>

[표 4] 영유아보육법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조(영유아 놀 권리 보장) ① 영유아는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과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과잉교육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분석·교육하며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보호자는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학습 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p> <p>④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교직원은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① (현행과 동일)</p> <p>4의2. 영유아 놀 권리보장과 과잉교육예방과 관련된 연구 및 어린이집 교사와 보호자 대상 교육 내용 개발</p> <p>②~ ⑦(현행과 동일)</p> <p>⑧(신설) 제1항 제4의2호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아정책연구소 및 유아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9조의3(영유아과잉교육예방)①어린이집은 제29조의 표준보육과정 및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과목(다른 과목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같다)의 교육</p> <p>2. 36개월 이상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유아</p>

	<p>를 대상으로 한 국어(한글), 수학(수), 외국어(한자 포함), 과학, 사회 과목(다른 과목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같다)의 하루 40분 이상 교육</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놀권리 보장과 과잉교육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육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현행과 동일)</p> <p>4의6(신설)제29조의3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p>

■ 제2세션 제1토론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아동인권에 대한 토론

정혜순(전 서울상도유치원(공립단설) 원장)

공립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37년의 교직생활 동안 평생을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왔으나 여전히 세상은 아이들 편이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이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 영유아시기의 사교육 실태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세상 그 누구도 아이들의 상처가 깊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가 세월이 흘러 사회문제로 비화 될 때 언론과 학자들과 세상 모두는 몰랐다는 듯이 호들갑을 떠난다. 문제의 원인이 영유아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애써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아직도 유치원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수를 통해 적용하며 교육적 관찰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 땅의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유치원 현장에 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방과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적 철학과 사교육을 공교육에 끌어들이려 얻는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학부모들의 특성화 교육에 대한 요구 대신 매달 부모 교육과 연수에 참여시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유치원에서 그 어떤 사교육보다 훌륭하게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홍보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었다. 유치원에서 노력하는 모습과 부모 교육을 통해 최소한 우리 학부모들은 특성화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토론 원고를 읽으며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유치원 현장과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영방송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영유아는 영유아전문가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전문가 인기 있는 몇 명의 방송인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연령에 맞게 초보 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실질적이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 넘쳐나는 잘못된 거짓 정보가 아닌 오로지 아이를 키우는 데 정확한 정보와 발달에 맞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공한다면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인식개선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이다.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셋째,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끼치는 악영향의 실제 사례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야 한다.**

넷째, **법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 하루 40분도 영유아에게는 악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시간이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개정만으로는 절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다섯째, 영유아 학급 당 인원의 감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을 운영하기에 급당 원아 수가 너무 많다. **현재 수의 1/2로 줄여야 한다.**

여섯째, **초저출산으로 0.78명까지 떨어진 출생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러 부처로 나뉜 저출산 문제의 방안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책을 제시해야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

일곱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유아의 놀 권리를 어른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막고 있거나 방치한다면 아이의 부모일지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유아의 발언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어떻게 초·중학교 학생들 보다 많은 시간을 학원에 앉아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영유아기의 손상된 경험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범죄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

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젠 솔직해지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포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쥘여 나라의 장래에는 관심없는 정치인들, 부모 역할에 무관심 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돈으로만 해결하며 자기 아이가 병들어 가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부모들, 원장의 돈벌이에 아이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외면하는 불쌍한 교사들---

여덟째. 교육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아이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 내용에 영유아를 위한 더욱 강화되고 제대로 된 개정을 요구한다.

아홉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을 유아교육 전문가로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의 잘못된 인식과 현장과 상이한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25년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가 설치되고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를 확대·배치하여 유치원 현장을 제대로 장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형식적인 장학이 아닌 장학의 본질을 살려 장학 할 수 있어야만 유치원 현장과 향후 어린이집이 개선될 것이고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전문가인 선생님, 원감, · 원장선생님들은 포기하지 말고 부모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수없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넘쳐나는 잡무에 정신이 없지만 가장 영유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책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자. 끊임없이 부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기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부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과후 강사나 사교육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의무 연수가 과잉교육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과잉교육 예방을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영유아시기의 잘못된 사교육은 아이가 태어나서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서 빨리 쑥쑥 자라라고 홍수처럼 물을 부어 뿌리가 썩어 결국 식물이 죽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과

같다.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말 못하는 아이를 죽여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거짓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영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교육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른들이 합세하여 같이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다.

**부모의 막연한 두려움이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지만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비로써 아이의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들어 준다.**

■ 제2세션 제2토론

발제 토론문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나는 발제문을 가급적 객관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읽으려고 했다. 발제를 한 저자의 의도, 마음, 진실성을 믿고 객관적으로 읽으려 했다. 이 토론문은 그런 심층적 읽기의 결과이며, 그와 함께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해진 것들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문제의 분석에 매크로(Macro), 메소(Meso), 마이크로(Micro)한 진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사교육 현상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다층적이고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Halliday, 2016). 단순한 문제였으면, 아마도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가 복잡한 다층적 문제라는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가 결정한다. 사교육기관이 어떻게 부추기든, 그 판단과 결정은 학부모 개인이 한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잘못된, 그릇된 판단일지라도.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자신의 경험, 지식, 믿음,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을 다른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입시제도는 물론이요, 우리의 사회 경제적 구조, 세계 경제 질서, 임금 구조, 학벌, 유교문화, 역사적 배경, 학교 교육 등.

더불어, 수많은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결정했을 것이고, 그러한 개인의 선택이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은 현상일 뿐이

며,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임이론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계가 많다. 오히려 게임이론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대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게임 이론은 유아대상 영어 사교육을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게임이론은 “교육적 경쟁“이나 “불필요한 과도한 교육“ 형태의 부정적 영향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성 (negative externalities)은 일부 개인의 행동이 (예: 유아 영어 사교육 참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교육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개인들이 더불어 유아 영어 사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필요한 과도한 교육 (Credential inflation): 특정 교육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쟁 우위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다른 학생들을 상대적 불이익에 빠뜨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참여하게 된다.

따라야 하는 압력 (Pressure to conform):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해당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수용해야 하는 압력은 경쟁적 환경에서 뒤처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 (Negative impact on well-being):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쟁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조에 빠지게 되어 스트레스와 과로, 웰빙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현상은 부정적 외부성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최적이지 않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다. 이는 개인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게임 이론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 (예, 학생, 학부모, 사교육 운영자)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자 및 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공평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대만, 중국, 홍콩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현상이며, 동아시아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히면 일부 국가들 제외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토론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표1> 아동·청소년 자살률 추이(2000-2021)와 관련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아동 청소년인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뭘 말하는 데이터인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특히, 0-7세 아동의 자살률은 그 자체로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통계로 보인다. 증가추세(2015년 1.4명 → 2021년 2.7명)에 있다(표1)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뭘 의미하는지, 7세 아동이 자살을 선택했다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일종의 공포 데이터일 수도 있다. 어떤 의도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65.6%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자녀의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결과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무관할 순 없다(그림3)는 주장이다. 과목을 살펴보면 국어(74.3%),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순으로 인지중심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위의 내용에서 서로 간에 전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학원에서 서의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아동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집에서 학부모의 육아 형태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사와 어떤 학생간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셋째, “ ‘사립초-국제중-특목고·자사고-명문대’ 로 알려져 있던 한국사회 엘리트 코스의 출발점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자리.” 한다는 주장인데, 이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영어를 둘러싼 상급학교 입시구조가 달라졌다. 특목고를 가는 데, 영어가 어느 정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없다. 요즘의 외고는 2000년대

초반의 외고가 더 이상 아니다. 수능 영어는 2018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의 킬러문항은 오히려 국어나 수학에서 더 심각하다. 현재는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 이들 과목이 더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사교육에서 영어는 이제 뒷자리로 물러났다. 그 자리를 여전히 수학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국어가 새롭게 들어왔다. 과학이나 영재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와중에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국어 비문학 지문을 읽으며, 고난도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 학원가를 헤매고 있다.

넷째, 수능 절대평가 이후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하라는 식으로 영어교육을 방임 상태로 놓아두고, 정부나 교육청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영어 능력의 격차는 더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절 영어 능력 편차가 벌어지고, 심화되고 있다. 그런 격차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학부모의 관심,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아동의 영어 능력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이런 선택에 부모의 정보와 소득의 격차가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미 초등학교 3-4학년에 영어 능력 격차가 확연히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영포아 (영어포기아동)도 발생한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학원에 거의 보내지 않았다. 공부는 내재적 학습 동기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의 조바심에 학원으로 아이 등을 떠밀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이의 주요 일상이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영어 실력이 많이 뒤처진다”는 직격탄을 맞기 전까지 애기다.

정기 상담에서 선생님은 “보통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서 문법과 말하기를 배워 온다”며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기 쓰거나 문제 풀이 숙제 좀 내달라는 나의 주문에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 학교에서까지 내주기 힘들다”고 했다.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고 뭐 하느냐는 말로 들렸다.

[광화문에서/김현지]사교육에 자리 내준 공교육... 교사·학교 권위 실추 불렀다. 사교육에 자리 내준 공교육... 교사·학교 권위 실추 불렀다[광화문에서/김현지] | 동아일보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학교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교사는 왜 이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 능력

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까. 과연 이 아이가 영어를 배울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 아이가 과연 학교 영어교육을 제대로 못 따라 가는 것일까. 혹시 학교는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이들이 잘하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왜 이 아이의 영어 능력을 다른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일까. 비교를 하려면, 학교에서 배운 것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언제나 가르쳐준 것은 ‘10’ 이면서 평가 할 때는 ‘100’ 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수능과 같은 입시를 둘러싼 평가에서 ‘비문학 지문’ 같은 것을 내고 평가하는 현실에서 과연 학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는 진도만 빼면서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몫인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 학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위 학생의 경우처럼 학생들의 자존감(self-efficacy)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주변 학생들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린 시절에 낮게 형성된 자존감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계급 논리나 거대 담론으로 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는 없나.

학업 능력이나 성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우리나라 학교 구조가 많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왜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왜 부모 소득이 더 높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왜 학력이 더 높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 우리 사회의 메리트크라시 (Meritocracy) 시스템, 교육의 군비경쟁(arms race)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근본 문제라면 대안은 뭘가.

성공. 맞다. 성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 사교육을 많이 받고, 결과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성공하고, 입시나 각종 평가에서 더 성공하고, 왜 이런 학생들이 더 우수하다고 학교는 평가하는 것일까. 입시나 학교 내신평가 등에서 교육과정이나 배운 것에 대한 성취 정도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학생들을 줄 세우고, 상대적으로 변별하면서, 등급을 나누고, 이런 교육 시스템과 평가 구조에서 학부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선택이 될까.

마지막으로, 발제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토론회나 대중들에게 했던 강연이나 논의의 장에서 언제나 등장했던 주장들이고 문제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10여 년 동안 조기영어교육의 비효과성, 조기영어교육의 한계

를 학문적으로 천착하면서 수많은 대중 강연도 했고, 사격세에서 토론회도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은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대세가 되었다. 누구나 선택하는 보편적 선택이 된 것이다. 이전에는 조기영어교육이 선택이었다면, 이젠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인식한다.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 대만의 학부모는 유아 대상 조기 영어 사교육을 선택한다. 심지어 중국의 학부모도, 프랑스, 독일의 학부모들도 그런 선택을 한다. 인도의 학부모도 그런 선택을 한다. 자신의 언어 정책을 고집했던 프랑스도 최근 10여 년 동안 영어가 유행하고 있다. 영어 사교육도 팽창하고 있다. 성인 대상뿐만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도 유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 과정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도입하기도 한다. 조기에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공립학교 유치원들이 일주일에 45분 정도 영어를 가르친다. 많은 EU 국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2014
Primary Education	44.9%	46.4%	53.1%	56.4%	59%	63.7%	73%	79.4%
Secondary Education	76.6%	74%	83.1%	83.3%	85.7%	92.2%	93.7%	97.3%

Fig. 2: Percentage of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that followed English lessons at school in the EU.
Source: Eurydice, 2002; Eurydice, 2006; Eurydice, 2012; Eurydic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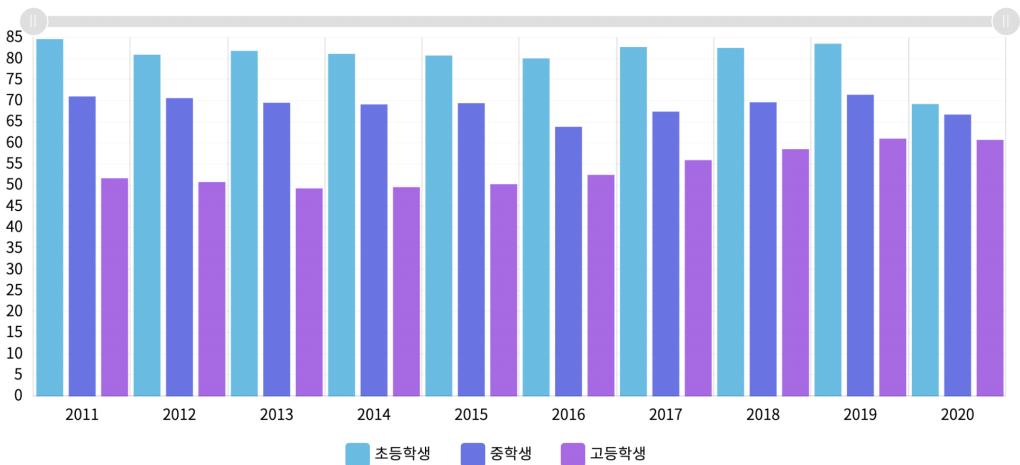
(Diaz, Noemi Ramila, 2020. 재인용, 213쪽)

왜 그럴까? 뭘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까? 그걸 보지 못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다른 관점, 다른 해석,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

보다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다른 선택이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영어 사교육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가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거나, 무의미한 것이면, 과연 학부모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젠 그런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영어를 선택하는지, 그 배경에 단지 직업, 입학,

계급 재생산의 욕망, 메리토크라시, 이런 것들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지. 유치원 단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동 학대나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 때문은 아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단지 어린 시절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물론, 그건 잘못된 통계일 것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 유치원 단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

연도	참여율	일반교과					예체능 취미교양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2007	77	68.4	39.3	55.6	58.6	25.6	37
2008	75.1	66.4	36.1	55.6	56.5	22.8	35.3
2009	75	66.2	34.4	55	55.8	23.3	34.8
2010	73.6	64.8	31.4	52.5	53.6	20.5	33.3
2011	71.7	61.6	26.2	49.2	50.2	17	33.1
2012	69.4	58.6	22.3	46.3	47.8	14	30.9
2013	68.8	57.1	19.8	44	45.8	11.5	32.1
2014	68.6	56.4	18.8	42.9	45.3	10.8	32.6
2015	68.8	54.7	17.3	40.8	42.5	9.7	34.6
2016	67.8	51	17.7	39.1	42.3	10.4	37.8
2017	71.2	52.2	18.9	39.8	43.3	11.2	41.1
2018	72.8	53.4	19.9	40.9	44.2	11.2	42.5
2019	74.8	56.7	21.3	44.1	47.2	12	44
2020	66.5	52.6	19.9	41.3	44.2	10.8	32.1

사교육 < 학습·교육 < 청소년통계(기존)

<표8> 【 과목별 및 학년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 만원, %)

구분	전체학생						예체능 취미·교양
	전체	일반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2021년	36.7	28.1	3.0	11.2	10.5	1.6	8.3
2022년	41.0	31.0	3.4	12.3	11.6	1.8	9.8
증감률	11.8	10.2	13.0	10.2	9.7	9.5	17.8
초등학교	37.2	23.4	2.2	10.8	7.1	0.9	13.8
1학년	31.4	14.8	2.8	6.3	3.8	0.3	16.6
2학년	36.3	18.3	2.5	8.9	4.6	0.4	17.9
3학년	38.9	22.7	2.1	11.3	5.8	1.0	16.2
4학년	39.4	25.9	2.1	12.2	7.7	1.1	13.5
5학년	36.7	26.5	1.8	12.0	8.6	1.2	10.1
6학년	40.3	31.3	2.0	13.6	11.4	1.5	8.9
중학교	43.8	38.3	2.9	15.3	16.3	2.2	5.4
1학년	42.9	36.8	2.3	15.3	15.3	1.5	6.0
2학년	43.4	38.4	2.8	15.4	16.4	2.2	4.9
3학년	44.9	39.5	3.5	15.1	17.1	2.7	5.2
고등학교	46.0	39.0	6.5	12.4	16.0	3.2	6.1
1학년	49.1	44.2	6.7	15.2	18.4	3.4	4.4
2학년	47.0	40.3	6.5	13.1	17.0	3.1	6.0
3학년	41.9	32.8	6.3	8.9	12.8	3.1	8.0

- 성적 구간별 사교육 참여율은 상위 10% 이내 학생은 77.5%, 하위 20% 이내 학생은 54.0%로 차이가 있었으며, 전년대비 각각 3.0%p, 2.3%p 증가함

<표19> 【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구분	사교육비(만원, %)			참여율(%, %p)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
전체	41.9	46.0	9.7	64.6	66.0	1.4
상위 10% 이내	53.3	59.0	10.8	74.6	77.5	3.0
11 ~ 30%	49.4	54.5	10.3	72.0	73.6	1.6
31 ~ 60%	44.3	47.8	7.9	67.4	67.5	0.1
61 ~ 80%	37.4	41.0	9.6	60.1	61.4	1.2
81 ~ 100%	29.0	32.3	11.2	51.7	54.0	2.3

* 고등학생의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 집계함(2018년부터 고등학생만 성적 조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과 목)									
일반교과 사교육	56.4	53.7	55.7	59.5	70.5	72.2	71.4	67.4	71.8
국 어	15.2	12.9	14.9	17.3	25.1	24.0	25.8	25.7	25.3
영 어	25.4	25.0	25.3	26.0	29.4	29.6	30.6	27.4	29.6
수 학	26.0	24.6	25.7	27.6	34.4	33.4	35.6	34.3	34.7
사회, 과학	13.5	11.1	12.8	16.0	22.5	22.6	23.6	21.5	22.7
논 술	14.5	14.3	13.8	15.9	28.5	17.3	20.6	33.0	28.0
컴퓨터, 제2외국어, 한문	10.6	10.7	10.0	11.2	22.4	18.4	23.3	26.9	22.6
컴퓨터	16.5	16.3	14.3	19.0	24.1	21.9	23.9	26.9	25.5
제2외국어·한문	7.7	7.2	8.3	7.8	20.3	15.4	21.8	26.4	20.5
예체능, 취미·교양 사교육	18.9	17.0	18.0	22.7	38.4	27.9	35.5	51.9	40.7
총액	75.3	70.7	73.7	82.2	108.9	100.1	106.9	119.3	112.5

중고등학생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국어 vs 영어 vs 수학 (17.3 vs 26.0 vs 27.6만원), 고등학교:
 국어 vs 영어 vs 수학 (25.3 vs 29.6 vs 34.7만원).
 (kostat.go.kr) 2023년 3월 7일. 통계청 보도자료.

※참고문헌

- 이병민. (2014).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 우리학교.
- Butler, Y. G. (2015). English language education among young learners in east asia: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2004-2014). *Language Teaching*, 48(3), 303-342. doi:<https://doi.org/10.1017/S0261444815000105>
- Choi, Alvaro. 2010. "Analysis of private tutoring decisions in Korea: A game theory approach" . *Regional and Sectoral Economic Studies*, 10(2), 23-36. <https://www.usc.es/economet/reviews/eers1032.pdf>
- Diaz, Noemi Ramila. (2020). European and national trends impacting on EFL development in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tuition sectors in France. *Estudios Interlinguísticos*, 8, 209-224.
- Halliday, Daniel. (2016). Private education, positional goods, and the arms race problem.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15(2), 150-169. DOI:10.1177/1470594X15603717.
- Oller, AC., Glasman, D. (2013). Education as a Market in France. In: Bray, M., Mazawi, A.E., Sultana, R.G. (eds) *Private Tutoring Across the Mediterranea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ensePublishers, Rotterdam. https://doi.org/10.1007/978-94-6209-237-2_5
- Tarek H. Selim, 2008. "The Education Market in Egypt: A Game Theory Approach," Working Papers 422, Economic Research Forum, revised 06 Jan 2008.

■ 제2세션 제3토론

조기 영어 교육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I. 이중 언어와 뇌발달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은 아이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간의 뇌는 단어의 첫 음이 들리면 곧바로 나머지 단어를 추측하기 시작한다.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아이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두 언어가 활성화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두 언어를 전환하는 작업은 아이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언어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경을 관찰하는 능력이나 일련의 규칙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이중 언어 환경의 아이가 단일 언어 환경의 아이보다 전환능력이 높았다.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소리로 신호를 준 다음 화면 한쪽에 손가락 인형이 나타나게 한 결과 두 군의 아기들은 모두 소리가 들리면 아까와 같은 장소에 손가락 인형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화면 한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가락 인형을 반대쪽에 나타나게 하자.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아기는 곧바로 인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장소를 반대쪽으로 전환했지만, 단일 언어 환경에 있는 아기는 그렇지 않다.

이중 언어 아이의 창의력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아이들에게 상상 속의 꽃을 그리게 하자,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4세에서 5세 아이는 연과 꽃을 조합한 그림을 그렸고, 단일 언어 환경에 있는 아이는 꽃잎이나 나뭇잎이 없는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에게 여러 색깔이 블록으로 만들어진 모양을 똑같이 재현하기, 연속된 숫자를 큰소리로 외치기, 단어를 정의하기, 머릿속으로 산수문제 풀기와 같은 과제를 주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결과가 월등이 높았다. 창의력의 씨앗인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이다. 창의력 전문가인 칼커린(Kharkurin)교수는 다중언어가 왜 창의성에 유리한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한다. 첫

째, 여러 언어를 말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위하여 더 정교한 인지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지적 융통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II. 아이와 조기 영어교육

아이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아이도 어른과 같이 두 가지 언어를 섞고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해석은 언어학자마다 다르다. 하나의 해석은 두 가지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세계 공통적인 언어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국어나 영어를 모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두 가지 언어를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아이가 초기언어부터 두 언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 혼동이 일부 있지만 별 어려움 없이 두 가지 언어를 섞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학 전의 아이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능력은 두 가지 언어의 구조나 문법의 차이에 의하기 보다는 아이의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자기가 말하는 대상에 따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가 어떤 언어를 말했을 때 그것이 누구에 속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 가지 언어를 먼저 배웠다면 두 번째 배운 언어는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는 어른보다는 훨씬 흉내를 잘 낸다.

청각은 시각과는 달리 일부러 안들을 수도 없고 특별한 소리만 고를 수도 없으며 모든 소리가 청각과 관련된 뇌에 전달되게 된다. 소리를 선택하고 듣는 기술은 배워지는 것으로 아기는 소리를 구별하는 폭이 어른보다는 넓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모국어에만 있는 소리에는 더 예민해지며 모국어로 포함되어있지 않은 소리에는 점점 덜 예민해진다. 이러한 예로 'r'음과 'l'음이 구별 안 되는 한국어에 숙달되어 갈수록 아이는 구별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어구조가 다른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생 후부터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취학 전 아이에 대한 영어교육은 물론

유아나 영아에까지 영어를 가르치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영어로 된 동화CD를 들려주거나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영어교육은 아기의 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이로운 보다는 해로움을 줄 위험이 더 많다.

실제로 이러한 조기 영어교육으로 인해 언어지연 초래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이런 경우는 3세 이하의 유아보다는 아이의 언니나 형 혹은 오빠나 누나를 위해 집에서 하루 종일 영어 CD나 DVD를 틀어주어서 아이가 모국어를 발달시키는 자극이 결핍되고 언어에 대한 혼동까지 가져와 말이 늦어 병원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말만 늦는 것이 아니라 인지발달의 지연도 같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로 하여금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하려면 아이는 하나의 대상과 생각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배워야 한다. 또한 아기는 두 가지의 문법체계를 배워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종종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같은 글자나 같은 글자의 조합도 언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두 언어 중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느껴질 정도로 익힌 상태가 아니라면 아기에게는 이것이 아주 혼동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이가 두 가지 언어를 구별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지적 능력을 감안한다면 아이에게는 무리한 점이 많으며 모국어에 기반한 지적 능력 즉 수리력, 기억력, 사고력 등을 발달시키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모국어를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을 시점까지 진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두번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발음, 문법 그리고 단어연결 등에 혼동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단어를 다른 언어로 발음하도록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모국어 단어를 배우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더구나 두 가지 언어를 배울 경우 모국어만 배운 경우보다는 모국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데 장애가 와 아이로 하여금 심리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모국어로 이루어진 수리적 사고, 친구관계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 적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인지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더구나 인지발달이 정상보다 지되어 있는 아이에게는 이러한 조기의 영어교육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Ⅲ. 영어교육의 적기?

최근의 연구에서는 베르니케 영역보다는 브로카영역이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경험하는 자극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인이 되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영어 단어에 대한 베르니케 영역의 반응은 정상이었지만, 영어 문법에 대한 브로카 영역의 반응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다행히도 베르니케 영역의 언어발달에 대한 결정적 시기는 브로카 영역에 비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사춘기가 지난 뒤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지난 다음 영어를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표시가 난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와 상관없이 발음이나 문법에 오류가 발견되게 마련이다. 대명사를 잘못 쓰거나 관사를 빠뜨려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만다. 이미 모국어를 익힌 상태에서 영어를 익히는 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국어를 먼저 익숙해진 다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모국어를 빨리 익숙해질수록 그 문법구조에 따른 논리력이나 수리 능력도 함께 개발되기 때문이다. 모국어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하면 모국어의 언어적 지식과 센스를 이용하여 영어의 의미, 문장구성, 단어 형태에서는 유아기에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빨리 학습이 가능하다.

영어만 잘하는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면 모를까, 논리력, 수리 능력, 사회성, 지능 등 여러 가지 인지 능력에 대한 폭넓은 계발을 위해서라면 모국어를 일찍 습득하고 잘하는 것이 인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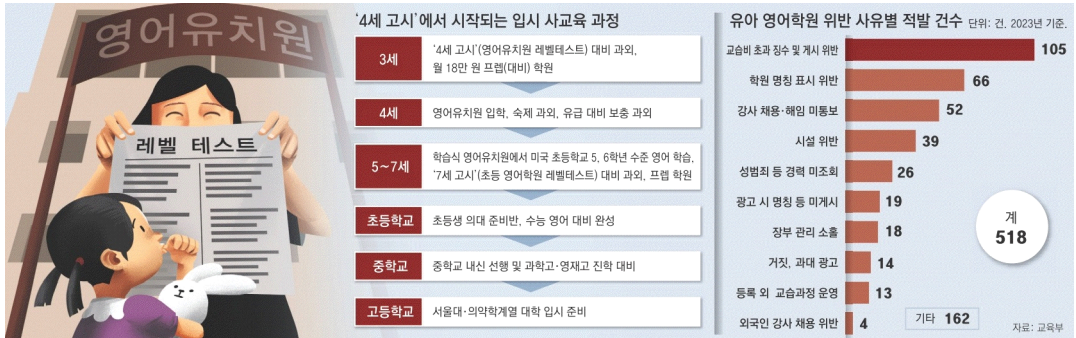
■ 제2세션 제4토론

부모의 조바심에 꺾인 아이의 행복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 유아 학부모)

4세 고시 '유치원 일타강사' '닥수(닥치고 수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영유아도 사교육 굴레> 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단어들이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사교육 실태가 1만1000명의 설문, 영유아 부모, 전문가들을 통해 구체화 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열풍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영어유치원 가기 위한 과외를 받고, 이곳에 다니면서도 영유 이후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현재 대한민국 미취학 아동들의 실태다.



I. 설문조사 결과에 담기지 않은 서울-수도권 사교육 시장

“겨우 3개? 내 주변은 7, 8개씩은 하던데…”

설문조사가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영유아들의 사교육 부담은 설문 결과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연간 사교육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6%, 3개 이상 사교육을 시킨다는 응답이 49.2%로 집계됐다.

그러나 설문에선 사교육이 가장 활발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응답률이 낮았다. 지역별 인구 구성에 비례한 표본 추출이 이뤄졌다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득층, 강남 거주자들이 본인의 사교육 지출이 많다는 것을 공개하기 싫어 응답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II. 변형 사교육 시장… 영어 키즈카페, 영어 도서관



아이들이 감당하는 부담감은 어른의 상상을 넘어선다. 2세부터 4세까지 영재교육을 받고, 검도, 플룻, 수학영재학습, 영어 원어민 과외, 과학 등을 강요받은 아동도 있다. 한 아이는 부모 앞에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을 보여 상담을 받기도 했다. 영어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못 한다고 따돌린 경험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 “잘하는 친구를 보면 불안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거나 하면서 노는 것이 소원” 이라고 말한다.

전일제 영어유치원만 문제는 아니다. 놀이의 영역을 학습이 침범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영어 키즈카페’ ‘영어 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하원 후 또는 주말에 아이들을 유인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3개월 200만 원대, 2년 1000만원대 이용료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다. 원어민 강사 배치는 기본이고, 독서, 미술 등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아이들은 주중에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이런 시설에 끌려다니며 학습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Ⅲ.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시설에선 “사교육을 시킨다” 는 죄책감을 덜 느낀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선 “공교육 범주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사교육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 역시 이들 기관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도한 인지 중심 교육으로 호를 가능성, 선행학습의 고착화 우려도 분명 있다. 하지만 영유아 사교육에서 ‘돌봄’ 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방과 후 시간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해선 교육 당국에 더 강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야 한다. 유치원에서 책정한 방과 후 과정 교습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해 보인다. 시간 대비로 비교했을 때 사교육 시설과 별 차이 없는 비용을 내야 하니, 부모들에겐 “그럴 바엔 영어유치원을 보내겠다” 는 반응도 나온다.



Ⅳ. 영유-비인가 국제학교-해외 대학...공교육에 대한 불신

영유아 사교육은 이후 15년 이상 이어질 ‘계급 재생산’ ‘부의 대물림’ 의 출발점이다. 영어유치원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욕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초중등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곳 부모들에게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계층, 계급에 따른 ‘구별짓기’ 욕망이다.

최근 공교육을 거부하고 학원에서 수업 듣는 초중고생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대학을 위해 서라면 학교도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인가 국제학교’다.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시설이다. 미국 교육과정을 이식해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곳들이다. 상당수가 초등 과정부터 학생을 모집하는데, 영어로만 수업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다 오거나, 영어유치원을 다니다 온 아이들 비중이 높다.

이들 학원의 불법적 운영도 비판 받아야 하지만, 이런 시설의 성행은 한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불신받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다. ‘사교육 대책’의 다른 이름은 ‘공교육의 정상화, 내실화’일 것이다.

■ 종합토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일시	주제	▣좌장 ■발제 □토론
8.21(월) 오후 1시	1세선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미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input type="checkbox"/> 김유미(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input type="checkbox"/> 김오경(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홍기목(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
		<input type="checkbox"/>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박지혜(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기관)
	2세선 만5세 사교육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명하(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정혜순(전 서울상도유치원 원장(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input type="checkbox"/> 김영훈(의정부가톨릭성모병원 소아청소년산경과 교수)
		<input type="checkbox"/> 박성민(동아일보 기자, 유아 학부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23 유진빌딩 4층 T.02-797-4044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홈페이지 www.noworry.kr